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83호 【루계 제24496호】 주체103(2014)년 3월 24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자력갱생의 력사와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나가자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연길폭탄정신을 배우며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력갱생의 강자이다.

오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는 자력갱생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을 비롯하여 그 어디에 가보아도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상이 나래치고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과 자원에 의거하여 이 땅우에 세인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활화산처럼 분출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격동적인 현실이다.

위대한 력사와 전통은 위대한 계승속에 빛난다. 우리는 장구한 력사적투쟁속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확증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며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 궤도우에서 페허우에 천리마가 날아올랐고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이 탄생하는 민족사적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력갱생은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자주적인간의 혁명정신이다. 력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외세의존은 예속의 길, 망국의 길이다.

자력갱생하는 나라가 흥하는 나라이고 찬란한 미래를 가진 나라이다.

우리 인민은 부강조국건설의 첫걸음부터 자력갱생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왔다.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연길폭탄정신이 항일대전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왔으며 1950년대를 진감시킨 자력갱생의 대진군은 우리 조국이 수세기를 도약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대문에 들어서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가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력의 원칙을 포기하였더라면 주체의 사회주의는 지구상에 태여나지도 못하였을것이며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함께 우리의 국호도 빛을 잃었을것이다.

자력갱생은 우리 혁명의 백승의 기치이며 영원한 조선의 정신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온것처럼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자력갱생의 길을 따라 꿋꿋이 걸어가야 한다. 시대와 력사가 전진하는데 따라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수 있지만 제힘을 믿고 자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립장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올해의 장엄한 투쟁은 자력갱생대진군의 계속이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강성번영에로 줄기차게 나아가고있는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전장에서뿐아니라 우리가 살고있는 모든 곳에서 제국주의와의 보이지 않는 대결과 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는 여기에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고도로 발양시키고 모든 면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놓을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자력갱생은 강성국가건설의 진로라고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여기에는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기어이 우리의 힘으로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가 깃들어있다.

우리는 혁명의 년대기마다 자력갱생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온것처럼 올해의 총진군에서도 우리 힘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자랑찬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조국번영의 위대한 기치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자주의 신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근본바탕이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에게는 가는 길이 어렵다고 하여 남을 쳐다보거나 시련이 겹쌓인다고 하여 에돌아가는 일이 추호도 있을수 없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내세우는 애착심, 우리 힘으로 우리의 멋이 나는 주체의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녀야 한다.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위업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넋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우리 조국의 불패의 국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한다.

자력갱생은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힘이 있고 강하기때문에 두려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신심에서 력사의 생눈길을 과감히 헤쳐나가려는 불굴의 개척정신도 생기고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성도 발휘되게 된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국력은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우리 당과 혁명대오가 정치사상적으로 더욱더 순결해지고 온 사회가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굳게 결속되고있다. 선군혁명의 길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적필승의 위용이 높이 떨쳐지고있으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도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선군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확신을 간직하여야 한다. 시간도 우리편에 있고 정의도 우리편에 있다는 든든한 배심을 지니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의 전세대들이 발휘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길에는 의연히 많은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6만t능력의 분피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생산한 그 정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동차와 뜨락또르, 불도젤과 굴착기,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내던 그 투지를 실천투쟁에 적극 구현해나간다면 점령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지금 우리 조국땅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각지의 농촌들에서 올해에 기어이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할 기세드높이 유기질비료생산을 늘여나가고있으며 많은 단위들에서 땔감문제를 비롯하여 인민생활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는 누구나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한다는 관점, 품이 들어도 자력갱생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겠다는 립장에 확고히 서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는 미제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던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처럼 선군조선이 제국주의반동들의 비렬한 방해책동을 어떻게 쳐갈기며 세계에 솟구쳐오르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의 자력갱생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앞세우고 세계를 압도해나가는 최첨단돌파의 정신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생산을 늘여나가야 한다. 누구나 최첨단돌파전은 바로 자기 초소와 일터에서 자기들이 벌려야 한다는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우리 조국의 모든것을 세계에 없는 사회주의새부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생산과 건설에서 높은 속도를 보장하면서도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 모든 창조물의 질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전선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준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잊지 말고 올해를 과학기술성과의 해, 과학기술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야 한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자면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기풍,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오늘의 자력갱생대진군은 일군들의 패배주의를 불사르는 용광로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우리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자력갱생의 력사와 전통을 외면하며 승리의 신심이 없이 하루하루 자리지킴을 하는 일군은 혁명의 지휘성원이라고 말할수 없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립장을 지니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며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야 한다. 제기된 난관을 자체로 헤쳐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우는 소리만 하는 현상, 자기의것은 홀시하고 덮어놓고 다른 나라의것만 쳐다보는 현상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찾고 그들의 집체적지혜와 창조적힘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나가는 선봉투사가 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깊은 사색과 정력적인 탐구, 대담한 착상과 이악한 실천으로 경제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오늘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론하기 전에 죽으나 사나 기어이 해야 한다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결사관철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인민군대지휘관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에 늘 자기를 비추어보며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누구나 자력갱생의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투쟁의 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데 모든 당사업을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며 우리 혁명의 년대들마다 자기 힘을 굳게 믿고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온 전세대들의 영웅적투쟁정신과 혁명적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력갱생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투쟁전략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의 보검이다.

모두다 자력갱생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마식령속도》로 비약의 불바람 일으키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 힘있게 과시

위성과학자거리건설 빠른 속도로 추진

은정과학지구에 새로 일떠서는 위성과학자거리건설이 힘차게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건설장에 달려온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의 지휘관들과 군인들 그리고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지난 5일 군민궐기모임을 가지고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보름 남짓한 사이에 놀랄만 한 건설성과를 이룩하였다.

전반적인 시공단위들에서 공사장구역내 오수 및 우수망, 전기 및 체신망공사에 일제히 진입하였다. 5만㎥이상의 토량을 굴착하고 흙관설치, 하부망구조물바닥 및 벽체콩크리트치기, 부재덮기를 힘있게 내민 결과 기본선로들에 한하여 총공사량의 85%계선을 돌파하였다.

하부망공사와 동시에 살림집 및 공공건물기초공사도 립체적으로 벌어져 공사장적으로 철도로선을 제외한 기초굴착작업량이 100% 수행되였다. 여러 시공단위들이 경쟁적으로 본격적인 기초콩크리트치기에 들어가 건물기초들이 하루가 다르게 솟아오르고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높은 뜻이 자랑찬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이곳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는 지금 뜻깊은 올해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빛나게 장식하는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원대한 건설구상을 자랑찬 현실로 펼쳐나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건설전투장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위용과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가야 합니다.》

드넓은 건설장이 사상전의 드센 포성높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대격전장이 되여 부글부글 끓고있다.

곳곳마다에 붉은 기발들이 힘차게 나붓기고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높이 울리고있다. 공사도로주변과 작업장마다에 전개된 각 시공단위별속보판들과 전투소보들에는 기적과 혁신의 새 소식들이 시간을 다투며 소개되고 예술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들의 힘있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전투장의 분위기를 끝없이 고조시키고있다.

각 시공단위의 당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발기하시고 명명해주신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사상전의 드센 포화를 들이대여 전체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키고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올해 당창건기념일전으로 공사를 무조건 끝낼 뚜렷한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모든 시공단위들에서 시공의 공업화, 현대화수준을 높이면서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1단계 전투목표인 하부망공사를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이 마지막단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조선인민군 임종춘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선하부구조건설원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오수망과 전기, 체신망구조물건설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중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여 하부망공사를 위한 수천㎥의 굴착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낀데 이어 말겨진 전구간에서 오수흙관설치와 매몰을 질적으로 끝내였다. 부대에서는 전기, 체신망구조물공사에서 내수합판을 리용한 정밀휘틀시공방법을 제일먼저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의 건물건축공사를 위한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관리국의 돌격대원들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 하부망공사에서 높은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있다. 이들은 전투장에 진입한 즉시 한사람같이 떨쳐나 2 000㎥이상에 달하는 돌을 수집하고 오수망구조물공사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수백m에 달하는 전기, 체신망구조물에 대한 벽체콩크리트치기에서도 이들은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나가고있다.

대외건설지도국, 수도건설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공단위들에서도 선하부구조건설원칙을 철저히 지켜 하부망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굴착과 콩크리트치기, 부재생산을 립체적으로 벌리면서 마지막전투를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맹렬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살림집 및 공공건물기초공사가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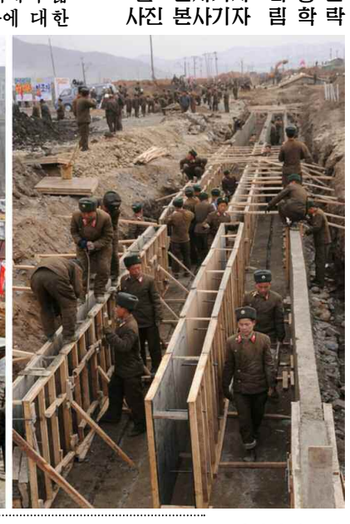
조선인민내무군 김경윤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할 총정의 각오를 안고 분발하고있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는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리는 한편 건설의 기계화, 공업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주도세밀한 전투지휘를 따라세우고있다. 특히 10호동, 9호동살림집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부대별사회주의경쟁을 치렬하게 벌려 벌써 기초콩크리트치기실적을 90%, 85%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있다.

5호동살림집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관철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갈 충정의 각오를 안고 기초콩크리트치기에서 련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부대에서는 혼합기를 비롯한 공사용설비들과 기재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춘데 기초하여 지난 18일부터 일제히 기초벽체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하여 련일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조선인민군 김웅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희천돌격대의 영예를 빛내여갈 만만한 투지에 넘쳐 건물기초콩크리트치기전투를 다그치고있다. 부대에서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드센 포화를 들이대여 짧은 기간에 4개 호동에 대한 6 000㎥이상에 달하는 기초굴착을 질적으로 해제끼였으며 그 기세로 혼합기들의 가동률을 높여 6호동, 7호동살림집들의 판기초콩크리트치기를 불이 번쩍 나게 끝내였다.

우리 과학자들을 사랑의 금방석에 앉히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실천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전체 건설자들의 비상히 앙양된 열의와 애국적투쟁에 의하여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의 면모는 하루가 다르게 일신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병춘
사진 본사기자 림학락



인견팔프생산공정건설 적극 추진

청진화학섬유공장에서

청진화학섬유공장 인견팔프생산공정건설장에 총공격전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능력이 큰 인견팔프생산공정을 일떠세울것을 결의해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원료, 증해, 세척 등 여러 공정들로 이루어진 인견팔프생산공정이 꾸려지면 인견팔프와 수백t의 종이제품과 함께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이 생산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된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백㎥에 달하는 콩크리트구조물까기와 토량처리를 1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제끼고 설비들을 설치할수 있는 기초굴착작업을 성과적으로 끝냈다. 이와 함께 자력갱생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수백점에 달하는 부속품들과 제판품들이 생산되고있으며 필요한 설비와 장치들에 대한 제작과 보수정비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비날론, 스프, 인견실, 아닐론을 비롯한 화학섬유를 많이 생산하여 방직공장들에 넉넉히 대주어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인견팔프생산공정건설을 다그쳐 끝내는데 도적인 력량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낼 목표를 내세우고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있다.

책임일군들이 건설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들이대여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분출시키고있다. 공장에서는 건설에서 제기되는 설비, 장치들에 대한 제작과 보수정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고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대중의 심장을 울리는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리고 곳곳에 혁명적인 구호들과 전투속보판들을 게시하여 전투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공무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가공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 결의밑에 이미 생산기지들을 훌륭하게 꾸려놓았다. 그리하여 많은 설비제작과 보수정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보수직장의 로동자들은 건설의 앞공정을 책임진 자각을 가지고 각종 제관품생산과 설비조립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전기직장에서는 수백대의 전동기수리와 보수를 자체로 진행할 목표를 내걸고 일자리를 푹푹 내고있다. 설계실과 공업시험소의 기술집단은 생산공정들에 대한 설계를 높은 수준에서 끝낸데 이어 생산공정의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고있다.

발전직장과 스프직장, 원액직장의 로동자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여러 생산공정들에 필요한 설비설치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대중적기술혁신의 열풍이 그 어느때보다도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지름길을 과학기술발전에서 찾고 새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공정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청진화학공업대학의 교원들이 팔프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적극 도와주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인견팔프생산공정건설은 더욱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고산과수농장에서 과일나무심기 시작

고산과수농장에서 과일나무심기가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백정보의 과수원에 갖가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들을 심을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산과수농장에서 과일나무들을 더 많이 심고 과일생산을 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를 어버이장군님께서 정해주신 날자에 무조건 완공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업들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농장일군들이 과일나무심기를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올해 봄철에 수백정보의 과수원을 조성함으로써 능력확장공사를 제기일에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제낄 목표밑에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였다.

모든 분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구뎅이파기, 거름실어내기,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끝내였다. 그리하여 과일나무를 심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장에서는 량사분장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보름동안에 수십만그루의 과일나무들을 심어야 하는 조건에 맞게 뿌리소독, 물주기, 복토 등 기술적인 문제들에 해답을 준 보여주기사업은 참가자들에게 과일나무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는 신심을 안겨주었다. 일군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분장과 작업반들을 맡고나가 나무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도록 기술적지도를 따라세우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높은 뜻을 실천으로 받들 열의에 넘쳐 키낮은사과나무와 배, 복숭아, 추리나무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전투를 시작부터 본때있게 벌리고있다.

과일나무모보장을 맡은 광명분장의 근로자들은 나무모보장이자 나무심기성과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나무모뜨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과일나무모운반을 맡은 근로자들도 운반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제때에 실어나르고있다.

부평지구 제1, 2, 3, 4, 5작업반의 근로자들은 애써 자래운 키낮은사과나무모들을 기술적요구대로 심어 사름률을 높이기 위해 정성을 다 바치고있다. 제13작업반의 근로자들도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땅에 청춘과원을 펼쳐놓기 위해 매일 많은 면적에 과일나무를 심고있다.

위북분장에서는 새로 조성할 과수원에 정보당 100t이상의 거름을 실어낸 기세로 력량을 집중하여 과일나무심기의 질과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가고있다.

성북분장의 근로자들은 과일나무들의 수종별, 품종별특성에 맞게 나무심기를 잘하면서 그루마다에 성실한 땀을 바치고있다. 이들은 과일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해 물주기를 잘하면서 가물피해도 막을수 있게 복토를 기술적요구대로 하고있다.

영광의 땅에 현대적인 대규모과일생산기지를 꾸려놓고 과일증산으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열의높이 분발해나선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헌신성에 의하여 시작부터 과일나무심기실적이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정 론

봄 맞 이

우리는 상표도안을 창작하는 한 사람을 알고있다.

대동강맥주상표를 비롯한 유명한 상표들을 도안한 그는 자기 직업을 무척 사랑한다. 얼마전 그와 만났는데 요즘 몹시 바쁘다는것이였다. 그에게 일감이 많다는것은 그만큼 새 제품들이 늘어났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최근에 어떤 상표도안들을 창작하는가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끝날줄 몰랐다.

지난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어느 한 공장에서 내놓은 제품들의 상표도안만도 10여가지에 달하고 강계포도술공장에서 만드는 여러가지 제품들의 상표도 새롭게 하였는데 참 멋있다고 한다.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들에 달게 된다는 《봄맞이》라는 상표도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세찬 충격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알고보니 우리 원수님께서 세심히 지도하여주신 상표이름이라고 한다.

봄맞이!

새길수록 제힘으로 행복의 새봄을 마중해가는 우리 조국의 벅찬 숨결이 가슴뿌듯이 안겨왔다. 지금 이 시각도 끝없이 태여나 자리를 넓혀가는 우리의것,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에 고동치는 넋과 기상이 그 류다른 부름에 실리여 가슴을 쿵쿵 울려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들이 이미 만든것은 그보다 더 월등하게 만들고 남들이 만들지 못한것도 대담하게 만들어내며 민족의 슬기를 만방에 떨쳐나가야 합니다.》

《봄향기》, 《서리꽃》, 《은하수》, 《철쭉》, 《옥류》, 《선흥》, 《봄나리》…

나날이 늘어나는 우리의 상표들은 불러만 보아도 민족의 향취와 정서가 그윽히 풍긴다. 제땅에서 제손으로 자기의것을 창조하며 아름답고 문명한 래일을 마련해가는 우리 생활의 숨결이 봄의 훈향마냥 가슴을 파고든다.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신 그날에도 제품에 새겨진 《아리랑》이라는 글을 보고 또 보시며 우리 상표를 단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야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줄수 있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간곡한 말씀이 귀전을 울린다.

멀고 험한 길을 이어 외진 산골군을 찾으신 그날에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황금산에서 나오는 산열매를 가공한 제품이라는것이 직관적으로 알릴수 있게 《황금산》이라는 상표도안도 더 잘 만들어야 한다고 따뜻이 이르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 음성 뜨겁게 되새겨진다.

남의 집의 금덩이보다 제 집의 쇠덩이가 더 낫다는 말도 있듯이 번쩍거리는 남의것보다 자기의 넋이 깃들고 땀이 스민 자기의것이 몇십배, 몇백배 더 귀중하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미감과 정서에 맞고 우리의 꿈과 리상이 어려있는 상표들을 마주할 때면 우리의 가슴은 그처럼 이름할수 없는 흥분으로 높뛰는것이리라.

자기의것이 없는 민족은 사실상 노예나 다를바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록에 쓰신 하나의 이야기가 못 잊게 되새겨진다.

해방전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가 조선사람들이 만드는 《잰내비표》성냥을 밀어내기 위해 벌린 책동은 얼마나 비렬한것이였던가.

《잰내비표》성냥은 질도 좋았지만 잰내비가 복숭아가지를 메고있는 상표가 유별하여 사람들의 눈을 끌었다. 사람들은 저저마다 《잰내비표》성냥을 사갔다. 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일제는 《잰내비표》성냥 수만통을 무더기로 사서 그것을 통채로 물속에 잠그었다. 그리고는 젖은 성냥을 말리워 다시 시장에 내다팔았다. 그 성냥에 불이 켜질리 만무하였다. 나라가 없는탓에 민족의 얼이 깃든 상표도 지켜낼수 없었던 수난의 시절을 얼마나 가슴아프게 되새겨주는 이야기인가.

해방후에야 우리 인민은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 자기의 첫 제품을 보란듯이 만들어냈다. 우리 상표가 붙은 비누와 연필을 받아안고 사람마다 감격에 눈시울적시던것이 벌써 수십년전의 일이다.

소박하게나마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하나둘 제힘으로 만들어내던 우리의 공업은 미제가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황폐화되였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재더미로 변하였고 약동의 숨결로 고동치던 우리 공업은 무참히 파괴되였다. 그러나 조선은 다시 일어섰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행복과 번영을 바란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바란다고 하여 이룰수 있는 꿈이 아니다.

행복은 창조해야 하고 쟁취해야 하며 피타는 투쟁으로 앞당겨와야 한다.

번영의 새봄은 바로 자력갱생의 강자들만이 맞이할수 있는것이다.

설계도면 한장 없었지만 뜨락또르를 분해하여 수천매의 부속품설계도면을 그려내고 손에서 피가 나오도록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가공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 자재로 만들어낸 첫 《천리마》호뜨락또르가 우리 수령님 계시는 평양으로 향하던 그날의 가슴벅찬 광경이 눈에 보이는듯싶다.

망치로 차체를 두드리고 새끼줄로 크랑크축을 연마하여 첫 자동차를 만들고 조선사람들이 전기기관차를 만들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장담을 보란듯이 눌러버리며 우리의 힘으로 만든 《붉은기》호전기기관차가 력사의 궤도우에 우렁찬 기적소리를 높이 울릴 때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은 얼마나 컸던가.

풀무소리 처량한 야장간에서 낫과 호미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던 락후한 농업국가로부터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고 무엇이나 마음먹은대로 척척 만들어내는 력사의 봉우리에 우뚝 올라선 경이적인 현실,

6 000t프레스, 중량자동차, 대형불도젤, 대형굴착기, 대형선박…

그 하나하나의 이름들은 달랐다. 하지만 그것을 안아올린 뿌리는 하나였다.

공고한 후방도 없는 천고의 밀림속에서 무기가 모자라면 병기창을 차려놓고 제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왜놈들을 족치던 백두의 정신과 기상, 그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 바로 우리의것의 넋이고 원천이였다.

그렇다. 행복과 번영의 화원밑에는 자력갱생의 억센 뿌리가 있었다.

그 자주의 정신이 우리 행복의 원천이였고 더 좋은 래일을 기약하는 번영의 밑뿌리였다.

봄은 태양의 빛발이 안겨주는 희망의 계절이다.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적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자기 식의 번영의 궤도를 어떻게 닦아왔는가 하는것을 돌이켜볼수록 눈시울이 젖어든다.

고난의 눈보라속에서 태여나 온 나라를 최첨단돌파전에로 부른 《련하기계》는 정녕 하나의 상표이름만이였던가.

《련하기계》상표를 붙이는 그 순간을 위하여 그리도 마음쓰시였던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안아온 최첨단돌파전의 승리가 그리도 귀중하시여 련하기계의 상표를 붙일 위치와 크기도 몸소 가늠해보시던 우리 장군님,

그렇게 붙여진 《련하기계》라는 이름을 보실 때마다 귀하고 또 귀하시여 걸음을 멈추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계라고 자랑스럽게 되뇌이시던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진정 가슴뜨거운 추억이다.

한줌의 쌀, 한줌의 비료가 그처럼 귀하던 때에 생산정상화의 동음 우렁차게 울리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비료를 가득 채운 마대마다 새겨진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라는 글발을 그리도 소중히 만져보고 또 만져보시던 우리 장군님의 희열의 세계,

대단하다고, 아무것이나 다 제것이여야 한다고 하시며 《2.8비날론련합기업소》라는 글발이 새겨진 포장제품들을 그처럼 감회깊이 보고 또 보시던 어버이장군님의 환하신 미소를 어이 잊을수 있으랴.

민족의 흥망을 결정짓는것은 그 어떤 외적요인이나 물질적재부가 아니라 바로 자력갱생의 정신력이며 제힘으로 살아나가려는 자주의 정신이다.

자기의것을 창조하지 않고 남을 쳐다보며 남의 덕에 살아가려는 민족은 언제 가도 흥할수 없고 설사 남의 덕에 일시적인 번영을 얻는다 하여도 그것은 모래우에 선 루각이나 같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인사가 자력갱생의 정신에 의거한 북의 경제는 룡과 같지만 예속의 올가미를 걸고있는 남조선의 경제는 거품경제, 땅속의 지렁이와 같다고 한탄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끝없이 늘어나는 우리 상표들이 귀중한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그 하나하나의 상표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이 땅의 모든것을 세상에 없는 사회주의재부로 만들기 위한 자력갱생강자들의 땀과 열정의 산물이며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조약돌 한개도 가슴에 부둥켜안고 뜨거운 숨결을 부어주는 **김정일**애국주의자들의 값높은 투쟁의 자욱이다.

《봄맞이》, 얼마나 의미깊은 이름인가.

온 세계의 앞장에서 남먼저 행복의 새봄을 마중해가자는 우리 원수님의 높으신 뜻이 뜨겁게 가슴을 울린다.

우리가 만드는 창조물들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민족적감정과 구미에 맞을뿐아니라 세계를 압도하는것이여야 한다.

자력갱생이란 바로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돌파의 정신이다.

하나를 만들어도 세계적인것을!

하나를 창조하고 건설하여도 최첨단을 돌파한 최상의것을!

이것이 자기 땅에 발붙이고 세계를 보는 자력갱생강자들의 창조의 배심이고 민족적자존심이다.

남들이 못한다는것을 해내고 남들에게 없는것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우리 상표를 달 때의 기쁨은 얼마나 큰것인가.

체험해본 사람만이 그 진미를 알수 있는 창조의 세계는 간고하면서도 환희롭다. 《봄맞이》와 같은 우리의 제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만들어내는것이야말로 승리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는것으로 된다.

남의 자원, 남의 기술로 만든 제품만 쓴다면 남의 배나 채워줄뿐이다. 우리 인민은 우리의 상표가 붙은 우리의 제품을 찾고있다.

그대 만약 참다운 행복의 봄맞이를 바란다면 수입병에서 용감하게 벗어나라. 그대 만약 번영의 봄맞이를 앞당기고싶다면 세상에서 제일인 우리의것을 만들어내는 애국에 살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은 우리의것이 이 땅에 넘쳐나면 그것이 곧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이다.

선군의 푸른 하늘아래 우리의 땀과 지혜, 애국의 넋이 깃든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 꽉 들어찰 때, 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문패를 온 세상이 다 보게 높이 달 때 그속에 내가 만든 제품도 있다고, 바로 이것이 우리 공장제품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게 창조로 삶을 불태우자.

자력갱생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우리의 봄맞이를 위하여 창조와 혁신의 붉은 줄을 어디서나 높이 올리자!

방 성 화

눈보라행군길에 어린 공격정신

무포숙영지에 대한 취재를 마치고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삼지연읍으로 돌아오는 길에서였다.

우리가 백두산으로 향한 도로가 시작되는 갈림길에 이르니 헌시비가 보이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된지 25돐이 되는 때에 사연깊은 눈보라행군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

헌시비 《만대에 빛나라 백두령장의 눈보라행군길이여》를 바라보느라니 백두산에 수놓으신 그이의 거룩한 자욱자욱이 숭엄하게 안겨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구나 백두산에 올라가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과 항일혁명선렬들의 피어린 자욱이 어려있는 유서깊은 산발들을 둘러보면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혁명을 끝까지 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지게 될것입니다.》

주체61(1972)년 5월 31일, 여름철이 눈앞이였지만 백두산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있었다. 이날 눈보라속을 헤치며 백두산으로 가는 일행이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신 행렬이였다.

백두산의 칼바람과 사나운 눈보라는 산같은 눈기둥을 일으켜 행렬을 집어삼킬듯 덮쳐들었다. 온갖 연약하고 잡다한것들을 말끔히 휩쓸어가는 눈폭풍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행렬은 그이와 숨결을 같이하며 한걸음 또 한걸음 전진해나갔다. 간난신고끝에 백두교를 지나니 눈이 허리를 넘게 쌓여있었다. 행군대오의 담을 시험하려는듯 눈보라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었다. 더는 모험을 할수 없다고 생각한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이런 날씨에는 백두산으로 오를수 없다고 안타까이 말씀드리였다.

백발을 흩날리는 백두산정을 올려다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의 눈보라가 사랑하는 고향의 숨결인듯 청신한 대기를 심호흡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태연자약한 어조로 일군들에게 이렇게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와 맞서도 보고 험한 눈길도 헤쳐보면서 고난의 행군길을 돌이켜보아야 조선혁명이 어떤 혈로를 헤쳐왔는가 하는것을 깊이 깨달을수 있고 앞으로 우리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쉽게 극복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의 먼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은 울부짖는 눈보라를 짓누르며 백두의 산발을 타고 메아리쳤고 대오는 또다시 전진하였다.

백두의 담력, 백두의 기상을 천품으로 타고나신 위대한 장군님을 진두에 모시고 용기백배 나아가는 대오는 사나운 눈보라를 휘여잡으며 드디여 혁명의 성산의 정점에 올라섰다.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자연의 휘파람소리를 울리는 눈보라를 헤가르며 쩡쩡 울려퍼졌다.

수령님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선의 언덕을 맞받아 헤쳐나가시였다. 이것이 바로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다시말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은 만난을 맞받아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꺾이면 꺾일지언정 신념을 버리지 않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며 제힘으로 기어이 조국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려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자, 이것이 오늘 자신께서 백두산에 올라 더욱 굳게 다지게 되는 결의이고 또 하고싶었던 말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은 크나큰 격정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끝까지 걸어갈 심장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한 영 민

폭풍같은 반향, 또 보고싶은 공연

모란봉악단 성황리에 공연 시작

【평양 3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으로 들끓는 온 나라에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사상전의 우렁찬 나팔소리가 힘차게 울리고있다.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안아온 1970년대와 같이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공세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모란봉악단이 혁명적이고 기백있는 참신한 공연무대를 또다시 펼쳐놓았다.

인민들의 열렬한 찬사와 사랑을 받으며 명성떨치는 모란봉악단은 23일 4.25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진행하였다.

공연장소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함께 뗄수 없이 친숙해진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평양시민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과 방창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 《바다 만풍가》, 녀성3중창 《귀향의 노래》, 녀성독창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녀성2중창과 방창 《우리 원수님》, 경음악 《병사의 발자욱》, 녀성중창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드시고 혁명의 최전방에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강성번영의 기상을 온 누리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환희로운 음악세계로 펼쳐보였다.

인민이 누려갈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위해 끝없는 헌신의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나깨나 그리며 그이와 혈연의 정을 맺고 사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심장의 노래로 울린 녀성독창과 방창 《뜨거운 정》, 녀성2중창과 방창 《우리 어버이》는 관람자들에게 크나큰 감명을 주었다.

위인흠모의 열기로 장내를 격동시킨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선군태양의 빛발이 찬란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사회주의락원에서 만복의 희망을 꽃피우며 눈부신 문명을 창조해가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새겨안았다.

사랑과 정으로 뜨거운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노래, 경애하는 원수님을 이 세상 끝까지 믿고 따르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갈 신념의 노래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송가로 메아리친 공연은 녀성4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녀성중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로 절정을 이루었다.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시대정신을 창조하며 비약하는 조국의 벅찬 숨결이 맥박치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천만대중의 심장에 혁명의 불, 투쟁의 불을 달아준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관람자들은 사상예술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완벽한 공연무대를 펼친 출연자들에게 앞을 다투어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대오에 무한한 생기와 활력을 부어주는 우리 당사상전선의 제일나팔수들의 열정과 랑만에 넘친 참신하고 세련된 예술적형상, 장내를 들었다놓은 공연열기, 화려하고 특색있는 무대장치 등 황홀한 예술의 세계에 관람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명의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나가는 선군시대 주체예술의 발전면모를 남김없이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을 끝없는 흥분과 격정으로 높뛰게 하였다.

사상전, 선전선동의 포성으로 세차게 들끓고있는 온 사회에 약동하는 분위기를 더해주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높이 부르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는 천만군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줄것이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평양시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계속된다.

첫날부터 대인기, 대절찬

흥분과 격동으로 끓어번지는 4.25문화회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의 사상과 심장을 움직이는 예술은 세계를 변혁하는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4.25문화회관에서 모란봉악단공연이 진행된다는 예보에 접한 때부터 끓어오르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격정과 흥분이 드디여 터졌다.

어제 23일 오후 모란봉악단의 첫 공연이 진행되게 될 4.25문화회관광장은 순간에 사람바다를 이루었다.

가족, 친척, 동무들과 함께 온 사람들도 많았고 평양에 출장온 지방손님들도 적지 않았다.

사는 곳과 일터는 서로 달라도 모란봉악단공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한결같았다.

4.25문화회관이 드디여 관람자들을 향해 문을 열었다.

안내원들이 수천명이나 되는 관람자들에게 공연종목을 소개한 인쇄물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주었다. 가수들과 악단의 모습이 찍히고 오선악보가 형상된 인쇄물의 특색있는 겉표지로부터 시작하여 그안에 새겨진 공연종목과 출연자들의 이름 등은 사람들의 관람열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수많은 관람자들의 기대속에 공연은 정각 오후 6시에 시작되였다.

무대막이 따로 없고 소개자가 따로 없었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친근하게 자리잡은 모란봉악단의 가수들이 무대에 출연하자 객석에서는 폭풍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명성높은 멋쟁이악단의 공연을 보게 된 관중의 열기는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무대에 오른 하나하나의 종목들마다 관중의 심금을 꽉 틀어잡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셔지자 관중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치였다.

그것은 이 나라 인민모두를 사회주의문명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신 절세위인께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 열화같은 매혹의 분출이기도 하였다.

종목들이 끝나기 바쁘게 《재청!》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불과 몇명의 연주가들과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무대였지만 관현악단 못지 않은 울림으로 만장을 들었다놓군 하였다.

매 종목들에 대한 해설은 따로 없었어도 관중은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된 잊지 못할 나날을 뜨겁게 추억하였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갈 불타는 맹세를 가슴깊이 새기였다.

공연은 1시간 남짓하게 진행되였다.

공연이 끝나자 장내에는 또다시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차넘쳤다. 불꽃이 터져올랐다.

그 순간은 정녕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국보적인 예술단체와 이 땅의 인민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대고조의 박차를 더 힘있게 가해나갈 맹세가 합쳐지는 격동적인 순간이였고 모란봉악단이 터친 우렁찬 진군의 나팔소리에서 필승의 신심과 투쟁의 열정을 더욱 굳게 가다듬는 민심이 분출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공연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소감을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눈깜박거리는 순간조차 아쉬울 정도였다, 공연은 그야말로 붙는 불에 휘발유를 뿌린듯 한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하였다, 몇십번의 강연을 들은것보다 더 가슴이 후련하고 신심이 백배천배로 커진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공연은 끝났어도 사람들은 쉽게 헤여질줄 몰랐다.

글 본사기자 박 옥 경
사진 본사기자 김 종 훈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울린 승전포성 만선의 배고동으로 화답한다

서해의 바다가양식사업소들에서

서해의 바다가양식사업소들에서 과감한 총공격전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해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한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기질, 본때를 따라배워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바다나물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하고야말 일념에 넘쳐있다. 우리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숨결드높은 여기 서해의 전투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울린 승전포성에 만선의 배고동으로 화답해나가고있는 위훈자들의 투쟁이야기를 전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성삼
본사기자 김충성

바다밑에도 애국의 뿌리가 있다

옹진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의 뿌리가 되자, 이것이 오늘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인생관입니다.》

올해 옹진바다가양식사업소앞에 맡겨진 바다나물생산계획은 지난해에 비해볼 때 수천t이나 더 많은 량이다. 그 수행을 위해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왔다.

높아진 생산계획을 수행하자면 양식장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단 한달동안에 근 40정보의 양식장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전투목표가 세워졌다. 결코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은 것은 아니였다.

사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지난해 생산에서 시원스럽게 실적을 내지 못한 죄책감이 응어리져있었다. 오늘의 생산돌격전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비상한 자각, 우리 단위앞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이 하늘아래에서 떳떳이 머리를 들고 살수 없다는 결사의 정신력이 모두의 심장마다에 불을 달아주었다.

부족되는 바줄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한m의 바줄이라도 더 찾아내려고 사나운 파도에 몸을 화락 적시며 불굴의 투쟁을 벌린 종업원은 누구였으며 사업소의 생산계획수자와 자재소요량을 적은 수첩을 가슴속에 품고 발이 닳도록 먼길을 뛰여다닌 일군은 또 누구였던가.

양식장면적은 이렇게 한정보, 한정보 늘어났고 자력갱생의 흔적이 력력한 전투현장에서는 드디여 모내기가 시작되였다.

배를 타고 2시간이상 걸려야 가닿을수 있는 불리한 양식장조건, 그속에서도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100여정보에 달하는 작업구간에 대한 모내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였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중순, 예고없이 들이닥친 태풍이 이곳 사업소의 양식장들을 모질게 휩쓸었다. 모내기를 끝낸지 한달도 안되는 때여서 갓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다시마모들이 적지 않게 떨어져나갔고 그로 하여 사업소적인 생산전망에는 짙은 그늘이 비끼였다. 하지만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부닥친 현실앞에서 순간도 주춤하지 않았다.

—절대로 물러설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간고한 투쟁을 벌리며 조성해놓은 양식장인가. 바다가 열번 뒤집히면 열번 다시 모를 내서라도 사업소앞에 맡겨진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자.

무조건!

모두의 심장속에 숨쉬는 생명체마냥 간직된 이 말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결사의 정신력을 발휘하며 내달리는 위훈의 한걸음, 한걸음이였고 신념과 의지의 대명사였다.

지난해 12월의 불리한 날씨조건과 올해 1, 2월의 추위…

그 기간 서해의 검푸른 날바다에서 어떤 격전이 벌어졌는가를 여기에 다 전할수는 없다.

나라의 수산부문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리며 이들은 무조건이라는 말의 본질을 더욱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차디찬 바다물에 젖어 꽁꽁 얼어든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모보식을 하던 종업원들이 어찌 이곳 사업소의 나어린 처녀들만이랴. 책임일군들도 기술자들도 양식공들도 모두가 한모습이였다. 사업소에서 작업장으로 오가는 시간마저 아까와 바다바람에 얼굴이 얼고 두손이 심하게 터갈라지면서도 며칠씩 양식장을 뜨지 않던 그날날이 지금도 이들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흔적으로 간직되여있다. 그것은 결코 투쟁의 간고함이나 위훈에 대한 추억만이 아니다. 지난 기간 조건타발부터 앞세우면서 사업에서 높은 창조력을 발휘하지 못한 일군들의 뼈저린 자책이며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사업소앞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야말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같은 맹세이고 실천이다.

현재 사업소의 생산전망은 아주 락관적이다.

양식장들은 태풍피해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변모되였으며 전마선마다 다시마를 넘칠듯 싣고 사업소로 돌아오는 종업원들의 얼굴에는 창조의 보람이 비껴있다.

날마다 이어지는 위훈의 노래를 실었는가 서해의 푸른 물결이 끝없이 설레인다.

넘실거리는 파도에 둥실 뜬 배전에서 우리는 서해의 푸르른 바다속으로 쉬임없이 뻗어가는 애국의 뿌리를 본다. 그 뿌리에 한껏 떠받들려 날마다, 시간마다 람스런 열매들이 무르익어가는 소리를 듣는다.

들끓는 격전장의 숨결

푸른 물결우의 나팔수들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는 한척의 류다른 배가 있다. 이곳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타고다니는 배이다.

그 배의 주인들을 가리켜 사업소의 양식공들은 푸른 물결우의 나팔수들이라고 정을 담아 이야기한다. 아침마다 사업소정문으로 들어서면서 들을수 있는 기동예술선동대의 힘찬 나팔소리를 얼마후이면 푸르른 바다물이 설레이는 양식장에서도 듣군 한다는 양식공들이고보면 그럴만도 한 일이다.

배에서는 기동예술선동대의 나팔소리와 함께 사업소 당책임일군의 목소리도 울려나온다고 한다.

이곳 바다가양식사업소의 양식장면적은 주변의 다른 바다가양식사업소들에 비해볼 때 훨씬 넓다. 수백정보나 되는 넓은 면적의 여기저기에서 울려퍼지는 기동예술선동대의 나팔소리는 양식공들을 과감한 생산돌격전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바다편과 땅편사이의 경쟁

본격적인 다시마수확계절에 들어서면서 옹진바다가양식사업소의 양식공들과 가공공들은 서로 경쟁을 걸었다. 바다와 땅에서 벌어진 경쟁인것이다. 양식장조건이 날로 좋아지니 양식공들은 날마다 높은 실적을 내고있는데 이것이 가공공들에게 있어서는 간단한 걱정거리가 아니다. 양식공들이 전마선들에 다시마를 넘칠듯 싣고 들이닥칠 때마다 건조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군 한다.

《바다편이 또 한발 쏘누만.》

《이러다가 땅편이 뒤지겠소. 빨리 일손을 다그칩시다.》

날마다 커가는 가공공들의 그 걱정거리를 다 들여다본듯 양식공들은 매일 하루일이 끝난 후이면 건조장으로 달려나와 강력한 《지원포》를 쏘군 한다. 바다와 땅에서 벌어진 경쟁, 그것은 단순히 어느 한 집단의 명예만을 위한 경쟁이 아니다.

서로 돕고 이끌며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이다.

선거날 새벽에 있은 일

지난 9일 새벽 3시경이였다.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단잠에 들어있던 그 시각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 건조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다시마를 한아름씩 안고 창고로 향하는 사람들, 흐르는 땀을 닦을념도 하지 않고 다시 건조장으로 내닫는 사람들…

예상치 않게 눈이 내리고 있는 속에서 수십t의 다시마를 지켜내기 위해 약속이나 한듯 모여온 그들은 다름아닌 가공직장의 종업원들이였다. 누가 시킨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당이 맡겨준 수산부문의 한개 초소를 책임졌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눈내리는 새벽에 스스로 건조장으로 달려온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십t의 다시마는 짧은 시간동안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게 되였다. 그날 아침 가공직장 종업원들은 얼굴마다에 웃음을 함뿍 머금고 선거장으로 들어섰다. 바로 몇시간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어디에 있었으며 또 어둠속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포구에 울려가는 《바다 만풍가》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하륙장에서

현지보도

여기는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하륙장이다.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양식장을 배경으로 10여척의 전마선을 꼬리에 단 끌배들이 련속 포구로 들어선다. 기중기들의 고르로운 동음과 더불어 다시마를 무드기 싣고 달려가는 자동차들의 경적소리, 우렁차게 울려퍼지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약동하는 전투장의 숨결을 그대로 전해주는듯싶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 다시마하륙전투가 한창이다. 그중에서도 1, 2, 3직장을 맡은 3호기중기와 4호기중기가 있는 하륙장의 숨결이 높다. 방금 3직장의 전마선들에 실린 다시마를 처리한 3호기중기가 또다시 작업에 진입한다.

기중기운전공들의 구리빛얼굴에는 땀방울이 내돋지만 쉴념을 모른다.

《빨리, 더 빨리!》

오랜 기능공인 강성일동무가 양식공들에게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출렁이는 배전에서 양식공들이 민첩하게 움직인다. 눈이라도 달린듯 물면에 떠있는 전마선에 정확히 드리워지는 기중기의 견인활차고리, 다시마더미가 들어찬 그물고리들을 잽싸게 련결하는 양식공들, 기중기운전공과의 째인 협동속에 작업은 눈깜박할 사이에 진행된다. 이어 김혜경, 김옥동무들이 바줄을 든든히 련결한듯 호각신호를 보낸다.

기중기운전공이 조종단추를 누르자 쇠바줄이 팽팽히 당기여지더니 근 3t은 잘될듯싶은 다시마더미가 허공중에 떠오른다.

신호기발이 힘있게 펄럭이는 속에 기중기의 긴팔이 180° 련속 회전한다.

그때마다 다시마더미들이 움씰움씰 들리워 차판들에 폭포처럼 쏟아져내린다.

차례를 기다리고있던 리충성, 김윤미동무들이 다시마하륙작업에 또다시 들어간다.

모두가 성수가 나서 일손을 다그치는 속에 2직장의 수십척의 전마선들에서 수십t의 신선한 다시마가 부리워진다.

짐을 부린 전마선들이 배머리를 버쩍 쳐드는 속에 다시마를 듬뿍듬뿍 싣고 경적소리 높이 하륙장을 떠나는 자동차들로 포구는 더욱 세차게 끓어번진다.

만선의 기쁨으로 흥겨운 일터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직장장 박규철동무는 이렇게 말한다.

《다시마작황이 대단히 좋습니다. 전마선마다 다시마를 넘칠듯 싣고 포구로 돌아올 때면 〈바다 만풍가〉의 노래가 절로 나오군 한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장의 전마선들을 눈여겨보며 자기 직장을 따라앞서겠다고 승벽내기로 다시마수확전투를 벌린다고 이야기한다.

들끓는 포구에서 현장지휘로 바쁜 시간을 보내는 여만현지배인의 모습도 눈에 띄운다.

그는 직장별하루생산량을 분석하더니 요즘 바다물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시마의 생육조건이 좋아져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다시마를 생산한다고 하였다.

매일 수백t의 맛좋고 영양가 높은 다시마 수확,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쏟아져내리는 다시마, 그 흐뭇한 광경은 그대로 《바다 만풍가》의 노래구절인듯싶다.

중산돌격전의 기수들

옹진바다가양식사업소 다시마1직장

양식공 장철남동무는 어떤 어려운 정황이 제기되여도 맡겨진 계획수행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소문난 혁신자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양식장들에 대한 모보식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그는 작업조건이 불리했지만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남들보다 2배, 3배의 실적을 냄으로써 태풍피해를 가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 양식2직장 직장장 김덕철동무는 높은 실력으로 대중을 이끄는 지휘관이다. 김덕철동무가 직장장사업을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지난 10년동안 작업반장으로 사업하면서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해마다 150%이상 수행해온 훌륭한 경험이 있다. 올해에도 그는 양식장조성과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데 선차적인 모를 박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감으로써 바다나물생산에서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생산3직장 홍철영동무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바다나물생산을 위해 묵묵히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양식공이다.

그는 22년간 양식공으로 일해오면서 사업소적인 사회주의경쟁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해왔다.

홍철영동무는 솎음생산과 양식장정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는데서 직장과 작업반의 거울이 되고있으며 바다나물생산을 늘일수 있는 조건을 항상 주동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집단의 보배로 불리우고있다.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 양식1직장 고인복동무는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녀성작업반장이다.

그는 나라의 부강번영을 떠난 가정의 행복은 있을수 없다는 숭고한 애국심을 지니고 이신작칙의 모범을 발휘하여 작업반을 언제나 대중적혁신에로 이끌고 있으며 날마다 조국앞에 쌓아가는 실적을 안고 강성국가의 대문으로 떳떳이 들어서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있다.

장철남동무

고인복동무

김덕철동무

홍철영동무

100정보의 양식장 새로 조성

서해의 주요 바다가양식사업소들의 양식장면적이 늘어났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늘어난 양식장의 면적은 100정보에 달하며 이미 있던 양식장들의 다시마작황에 못지 않아 정보당 많은 다시마를 수확할수 있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면이 바다로 둘리싸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푸는 좋은 방도의 하나입니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수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가르쳐주시였다.

당의 원대한 구상실현에 떨쳐나선 수산성의 일군들과 서해바다가양식사업소들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양식장면적을 늘여 더 많은 다시마를 수확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특히 아직은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은 조건에서 띄우개와 바줄, 통나무를 비롯한 자재가 필요량보다 훨씬 모자랐다.

수산성과 여러 바다가양식사업소의 일군들은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고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로 바줄과 띄우개생산기지를 갖추어나갔다. 그들은 전기가 부족하면 수동식으로 바줄을 생산하였으며 부착줄은 지방자재를 효과있게 동원하여 군중적으로 떨쳐나 만들었다. 곳곳에 띄우개생산기지들을 새로 꾸리거나 보강하였다. 배수리에 필요한 통나무들도 림산사업소들과의 련계밑에 해결하였다.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드세찬 공격전의 열풍이 몰아치는 일터마다에서는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였다.

이 과정에 많은 량의 바줄이 마련되였고 수많은 띄우개들이 생산되여 높이 세운 목표를 점령하게 되였다.

박봉주총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정형 현지료해

【평양 3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내각총리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과외교양기지로 전변시킬것을 발기하시고 개건공사를 인민군군인들에게 맡겨주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을 가슴깊이 새기고 모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총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2월에 현지지도하신 로정을 따라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았다.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군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협의회에서는 개건공사가 빨리 진척되는데 맞게 태양절을 맞으며 야영생들을 받아들일수 있게 야영소운영준비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한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총리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순천화학련합기업소와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을 돌아보았다.

매일 수백t의 석탄을 증산

개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총돌격전의 불길드높이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동갱의 채탄중대들에서 날에 날마다 혁신적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장명철, 장명학, 김철준채탄중대원들은 막장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교대가 따로 없는 치렬한 생산돌격전을 들이대면서 매일 계획보다 훨씬 많은 량의 석탄을 생산하고있다. 그에 뒤질세라 서재갱 조철휘, 김창수채탄중대들과 김광철종합중대의 탄부들도 집단적혁신창조로 날마다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돌파하고있다.

석탄생산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서재갱 심일남고속도굴진소대, 전진갱 장경철굴진소대, 류동갱 전태룡고속도굴진소대를 비롯한 굴진소대들에서 날마다 높은 굴진실적을 기록하고있다. 탄광에서는 지금 매일 계획보다 수백t의 석탄이 더 생산되여나오고있다.

로농통신원 전순희

떠나갈 땐 빈배, 돌아올 땐 배전에 넘친다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의 끌배 110403호를 타고

동승기

포구의 아침은 류다른 정서를 자아낸다. 불덩이처럼 이글거리며 떠오르는 아침해가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물면을 박차며 바다새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하자 고요하던 포구는 또다시 새 숨결로 약동한다. 구미포에 창조와 혁신의 새날이 밝아온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양식공들의 하루작업은 바다에로의 진출로부터 시작된다.

노를 쥐고 앞서거니뒤서거니 전마선으로 향하는 양식공들이며 륙지에 고정시킨 바줄을 잽싸게 풀기도 하고 노를 저어 경쟁적으로 끌배에 다가들기도 하는 양식공들…

새날을 맞이한 구미포가 벅적끓는다. 5척의 끌배들을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50척이 넘는 전마선들이 삽시에 모여드는것과 동시에 자기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보고가 연방 날아든다.

새 숨결로 또다시 약동하는 포구를 한눈에 바라보며 흥분에 휩싸여있던 우리는 이곳 사업소지배인 김영호동무의 안내를 받아 끌배 110403호에 올랐다.

《기관 시동, 선미삭 올렷!》

선장 오경삼동무의 힘찬 구령이 울리자 선원들이 민첩하게 움직인다. 잠시후 울리는 출발신호와 함께 110403호는 10여척의 전마선을 끌고 양식장으로 향한다.

배기관소리가 가락맞게 들려오는 속에 10여척의 전마선을 위엄있게 거느린 끌배는 서해의 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기세좋게 달린다. 붉은기가 세차게 펄럭이는 전마선들에서는 감색 구명조끼를 입은 양식공들이 만단의 작업준비를 갖춘다. 하루전투목표를 남먼저 수행하여 이달경쟁에서 작업반이 첫자리를 차지하자는 선동원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문득 끌배의 발동소리가 뚝 멎고 맨 앞쪽의 전마선에서 약속된듯 한 손짓과 기발신호를 보낸다. 전마선들사이의 련결바줄들이 순식간에 풀려나가는 속에 제각기 자기 작업구역으로 향하는 전마선들로 하여 양식장은 새롭게 활기를 띤다.

우리는 양식공들의 위훈창조의 하루를 보다 상세히 전하기 위해 3직장 작업반장 김용철동무의 전마선에 자리를 잡았다.

떼줄 하나씩을 사이에 둔 전마선들에서는 양식공들이 걸싸게 일손을 다그친다. 길이가 1.5m나 되게 무성하게 자란 다시마들을 련속 솎음하여 한아름 또 한아름 경쟁적으로 배전에 끌어올린다. 불이 번쩍 나는 양식공들의 일솜씨에 의해 매 전마선들에는 정방형의 다시마더미가 시간이 다르게 키를 솟군다.

…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
…

누군가의 선창에 합세한 흥겨운 노래소리가 드넓은 양식장의 하늘가로 메아리친다.

양식공들의 작업을 거들어 살찐 다시마를 수확하는 우리에게서도 절로 노래가 흘러나온다. 합창의 주인공들은 소문난 혁신자들인 최용국, 송희, 리종철, 오금철, 박명철동무들을 비롯한 3직장의 양식공들이라고 지배인이 귀띔한다. 그리고는 올해 바다농사가 잘되여 정보당 백수십t은 수확할것이라고 하며 이렇게 말한다.

《땅은 농사군이 흘린 땀의 무게만큼 열매를 준다는 말이 있는데 바다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위해 강추위, 파도와 싸우며 겨우내 바다가 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릴데 대한 당정책옹위전의 함성이 이날바다우에 끝없이 메아리쳤습니다. …》

시간이 흐를수록 전마선들의 배머리는 점점 내려앉아 떠나올 때보다 40cm나 더 물에 잠기였다. 다시마들이 무드기 실린것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작업철수를 알리는 야무진 호각신호가 울린다. 곳곳으로 흩어졌던 전마선들이 다시 끌배주위로 모여든다. 자기들이 앞섰다고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는 양식공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계획수행에서 150%는 문제없다고 확신에 넘쳐 이야기하는 처녀양식공들도 보인다.

끌배에 그 힘이 묵직하게 실리는 전마선대오가 만선의 기쁨 안고 물을 향해 출발한다.

정든 포구가 점차 가까와온다.

사회주의 내 조국강산에 젊음을 더해주는 우리의 생활문화

새 봄 의 풍 치

바야흐로 봄기운이 완연하다. 버들가지에 한껏 물이 오른 강변,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산과 들, 눈석임물이 소리쳐흐르는 산골짝의 시내가…

그러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앞서 류다른 봄풍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흥그럽게 한다.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기풍속에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밝은 모습들이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마다에 어려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우리의 사회주의생활을 끝없이 사랑한다.

어딜 가나 희열과 랑만이 넘치고 젊음과 열정으로 약동하는 환희의 이 계절 단정하고 아름다운 옷차림과 몸단장에도, 고상하고 례절바른 도덕품성이 꽃펴나는 거리와 마을들에도, 행복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는 공원과 유원지들에도 세상에서 제일인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 안겨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쳐난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고있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 사회주의생활양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발양되고있다.

서로 돕고 이끌며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혁명적동지애와 건전하고 문명한 우리 식의 생활양식이 활짝 꽃펴나고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양식으로서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된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주의생활양식은 우리의 감정과 구미에 맞고 현대적미감에도 어울리는 고상하고 건전한 문화와 풍습가운데는 사람들호상간 서로 돕고 이끌며 남의 피로움을 자기의것으로 여기고 사심없이 도와주는 고상한 도덕륜리와 생활양식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고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적극 내세우며 부모잃은 아이들과 자식이 없는 늙은이들의 친혈육이 되여 그들을 따뜻이 돌봐주는것이 평범한 일로, 례사로운것으로 되고있다.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들에서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아래사람이 웃사람을 존경하며 애기어머니를 비롯한 녀성들을 아끼고 우대하는 기풍이 넘쳐나고있다.

날로 꽃펴나는 사회주의문명과 우리 인민의 고상한 생활기풍은 도로와 유원지, 공원과 휴식터를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지금 수도 평양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의 최고체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더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된바람이 불고있다.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더 많은 록지가 조성되고 도로관리사업이 전군중적운동으로 진행되고있으며 공원과 유원지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리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그 어느 곳을 가보아도 길을 걸으면서 도로에 휴지 한쪼박이 떨어져있을세라 눈여겨 살피고 공원과 유원지의 나무 한그루, 의자 하나도 자기의것처럼 아끼고 애호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새봄의 풍치에 비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 진정 그것은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따라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며 사회주의부귀영화,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려갈 행복한 래일을 힘차게 마중해가는 우리 인민의 열정과 기상의 일단인것이다.

본사기자 리 남 호

대동강반에 넘치는 인민의 웃음소리

중구역 경림강안공원에서

새싹이 움터나는 봄철과 더불어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수도의 문화휴식터들에서도 인민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며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념원이 현실로 꽃피게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경치좋은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중구역 경림강안공원을 찾았다.

수천㎡의 부지에 독서와 여러가지 체육운동을 할수 있게 아담하게 꾸려진 공원은 곳곳에 설치된 수십개의 파란 둥근 채양들로 하여 멀리에서부터 상쾌한 기분을 자아내고있다.

바드민톤장과 배구장을 비롯한 공원의 여기저기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웠다.

관리원 박진순동무의 말에 의하면 공원으로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때없이 찾아오는데 휴식날이면 그 수가 더욱 늘어난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끄는것이였다.

넓다랗게 꾸려진 로라스케트장에서는 로라스케트를 타고 재주를 부리는 어린이들이 붐비고있었다. 팔을 힘있게 저으며 씽씽 달리는 어린이들의 솜씨도 그러하였지만 교예배우들못지 않게 여러가지 기교동작을 펼쳐보이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감탄을 더욱 자아냈다.

우리가 어린이들의 기쁨넘친 모습에 심취되여있는데 등뒤에서 환성을 올리며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는것이였다.

돌아보니 배구장에서는 배구경기가 한창이였다.

쳐넣기를 알리는 호각소리와 《하나!-》, 《둘!-》 하면서 열성껏 응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셋!-》하는 목청과 함께 멋진 타격이 성공할 때마다 더욱 끓어번지는 응원열기로 하여 배구장은 떠나갈듯 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학생들이였다.

우리와 만난 한 대학생은 이렇게 학급동무들과 공원에 와서 체육운동을 하고나면 저도모르게 온몸이 거뜬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져서 밤새워 공부를 해도 피곤한줄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분초를 쪼개가며 학습을 하다가도 이렇게 짬을 내여 공원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알고보니 그들은 이 공원의 단골손님들이였다.

관리원은 배구장에서는 대학생들뿐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기관의 정무원들의 배구경기도 자주 진행되군 하는데 사람들의 체육열의가 나날이 높아간다고 하는것이였다.

바드민톤장에서도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근로자들로 흥성이고있었다.

공원에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피로도 풀고 몸도 단련하니 누구인들 로동의 희열과 랑만에 넘치지 않으랴.

모두의 가슴에 넘쳐나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였다.

《여러가지 운동기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으니 한번 왔다가도 발걸음을 쉬이 뜨지 못하겠수다. 실은 손자녀석의 성화에 못이겨 공원을 찾지만 매번 내 마음이 더 앞서는걸요.》

우리와 만난 중성동에서 사는 한 로인이 얼굴에 웃음을 담고 하는 말이였다.

어느덧 하루해가 거의 기울었지만 공원에서는 즐거움에 넘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멎을줄 몰랐다.

우리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무심히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터치는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였고 그 품을 한몸바쳐 지켜갈 보답의 맹세였다.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느라니 보다 문화적이며 랑만적인 생활을 꽃피워가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이 거기에 다 비껴있는것 같았다.

본사기자 홍 성 철

하나와 같이 단정한 모습들인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학생들 본사기자 찍음

밝 은 모 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옷차림을 비롯하여 몸단장을 단정히 하는것은 사람의 품격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항구도시 원산시에 대한 취재길에서였다.

해안광장을 지나고있던 우리는 바다가쪽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웃음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속에 두 청춘남녀가 바다를 배경으로 결혼기념사진을 찍고있었다.

화창한 봄계절에 맞게 산뜻하고 우아한 옷차림을 한 신랑신부의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연분홍색 조선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신부의 모습은 볼수록 아름다왔다. 광장을 지나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한마디씩 하였다.

《우리 조선녀성들에게는 역시 치마저고리가 제격이구만.》

《같은 치마저고리라고 해도 저렇게 은근하고 부드러운 색갈의 치마저고리가 더 보기 좋습니다.》

《모양은 또 어떻구요. 치마길이가 지내 길지도 않고 저고리품도 알맞춤하니 신부의 얼굴이 더 환해지는것 같습니다.》

생활에서 흔히 보게 되는 결혼식풍경이였지만 우리 사회에 차넘치는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엿볼수 있게 하는 광경이였다.

문득 우리의 눈앞에 원산의학대학을 찾았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마침 등교시간인지라 대학정문으로는 수많은 남녀대학생들이 들어서고있었는데 그들모두가 하나같이 조선치마저고리와 밝은 색갈의 와이샤쯔에 넥타이를 매고 대학생양복을 가뜬히 차려입고있었다. 머리모양도 모두 간편하면서도 시원스럽게 단장하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대학청년동맹일군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청년대학생들의 옷차림과 몸단장도 더욱 고상하고 세련되여간다고,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외모에서부터 단정하고 깨끗하니 교정의 분위기가 일신되고 학습과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 사회에 넘치는 밝고 참신한 분위기, 바로 그것은 사람들의 정신상태와 문화수준의 반영인 옷차림과 몸단장에도 비껴있음을 다시한번 확신하며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본사기자

출 근 길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문화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입니다.》

아침해빛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린다. 사람들의 물결이 새날의 위훈이 약속된 일터로 끊임없이 흐른다.

그들의 활기에 넘친 발걸음을 떠밀어주듯 수도의 거리마다 일매지게 뻗어간 정갈하고 깨끗한 도로들…

며칠전 상쾌한 기분을 안고 우리가 중구역의 한 거리로 출근길을 다그치고있을 때였다.

앞서 걷던 한 중년부인이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길가에서 무엇인가를 집어드는것이였다. 손에 쥔것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그마한 휴지쪼박이였다. 잠시후 그는 가까운 곳에 있는 휴지통으로 다가갔다.

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례사롭고 평범한 행동이였지만 우리의 가슴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밝고 깨끗한 거리가 더욱 소중하고 정답게 안겨왔다.

우리 나라에는 정연한 도로관리체계가 세워져있다. 도로관리에 스스로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도 많다. 수도의 거리는 물론 조국땅 그 어느 외진 령길에 가보아도 구봉령일가와 철령의 도로소대원들처럼 누가 보건 말건 도로관리에 티없이 깨끗한 애국의 마음을 묻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새벽이나 깊은밤에도, 눈보라휘몰아치고 비바람세찰 때에도 자기가 맡은 구간의 도로에서 애국의 삶을 꽃피우는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덥고 아름다운것인가.

애국의 마음을 안고 도로관리에 진정을 바치고 한생을 바쳐가는 미더운 도로관리원들,

그들만이 아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도로관리사업이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수도와 지방의 그 어느 곳을 가보아도 이른아침 자기가 사는 마을과 일터의 주변도로를 깨끗이 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온 사회에 아름답고 문화적인 생활기풍이 더욱 활짝 꽃펴나 나라의 귀중한 재산인 도로에 실금 하나 갈세라, 휴지 한쪼박이 떨어져있을세라 누구나 도로관리사업에 스스로 참가하고있다.

이렇듯 이 땅 어디서나 볼수 있는 도로에도 깨끗하고 문화적인 환경속에서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려가려는 우리 인민의 소중한 지향이 비껴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애 국 의 마 음

토산군 백화리당위원회에서 도로관리를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나가도록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도로관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모두가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이 도로관리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고있다. 리당위원회 일군들부터가 이 사업에 앞장서고있으며 도로관리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순 옥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로씨야련방공산당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3일 로씨야국가회의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까즈베크 따이싸예브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공산당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조로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황해북도에서 대중체육활동 활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세차게 들끓고있는 속에 황해북도에서 대중체육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도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속에 체육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체신관리국, 도고려약생산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 일군들이 모범을 보이고있다.

도급기관들에서 정상화되고있는 아침체조와 점심시간과 휴식일들에 벌어지는 탁구, 배구경기들은 기관안에 혁명적인 기백과 랑만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사리원시가 대중체육사업을 잘하고있다.

사리원기초식품공장, 정방산종합식료공장, 리계순사리원제1사범대학 등 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체육조건들을 잘 갖추어놓고 여러가지 체육경기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사리원시 미곡, 정방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장들에서도 집단달리기, 바줄당기기와 같은 대중체육활동을 적극 벌려 농장들이 알곡생산경쟁과 함께 체육경쟁열풍으로 들끓게 하고있다.

강철로 당을 받들어가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휴식일, 명절날들에 직장별, 작업반별축구, 롱구, 배구 등 여러가지 종목의 체육경기들을 특색있게 조직하고 그를 통하여 집단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송림시안의 고급, 초급중학교들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체육에 대한 교육과 상식보급을 짜고드는 한편 누구나 참가할수 있는 여러가지 체육경기들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그들이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도록 하고있다.

린산군, 서흥군, 연탄군, 평산군을 비롯한 많은 군들에서도 당의 체육의 대중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군소재지와 여러곳에 꾸려놓은 체육관,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도록 하여 대중체육활동으로 도시와 마을이 언제나 흥성이게 하고있다.

로씨야련방공산당대표단 도착

로씨야국가회의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까즈베크 따이싸예브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공산당대표단이 2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출판물보급원

모란봉구역출판물보급소 한희숙동무

모란봉구역출판물보급소 보급원 한희숙동무를 두고 구역은 물론 시안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출판물보급원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고있다.

그 부름속에는 20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우리 당의 사상진지를 지켜 불같이 살아온 그에 대한 값높은 평가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믿음을 한생의 재부로 간직하고 당정책을 한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며 맡은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게 하는데서 사는 보람과 긍지를 느껴야 합니다.》

1994년 10월말 어느날 모란봉구역출판물보급소 소장방으로 한 녀성이 찾아왔다. 그가 당시 구역의 어느 한 상업봉사단위에서 일하고있던 한희숙동무였다.

한희숙동무는 어떻게 되여 보급소에 와서 일할 결심을 했는가고 묻는 소장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 제대군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회에 나와 제대군관으로서 해놓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피눈물속에 7월의 나날을 보내며 저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뼈에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이제라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더 깊이 새겨주고 위대한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모실 오직 하나의 생각뿐입니다. …》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격해지는 심정으로 하여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한희숙동무의 출판물보급소 보급원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그는 새 초소에서 하루하루를 불같이 살았다. 하루종일 앉아볼새없이 맡은 단위들을 오가며 도서를 보급하고는 짬시간이면 독서에 여념이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한생이 서술되여있는 책을 손에 잡으면 보고 또 보며 보풀이 일도록 읽고 또 읽었다.

그러던 어느날 보급소에 새로 들어온 도서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를 맡은 단위들에 배포하고 돌아오는 한희숙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구가한 이런 훌륭한 도서를 한권이라도 더 가져다줄수 없는가고 절절히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밟혀와 도무지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위대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방도는 없을가?)

다음날 그는 소장에게 보급원들로 지금 진행해오는 도서선전을 통이 크게 해보는것이 어떤가고 제기했다.

그의 제기는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되여 모란봉구역출판물보급소에서는 보급원들로 위대성도서선전을 위한 새로운 준비사업이 시작되였다.

막상 일을 시작하자니 모든것이 욕망뿐이였다. 위대성도서선전을 위한 작품창작도 해야 하였고 보급원들의 화술기량도 높여야 하였다. 가정부인들인 보급원들이 맡은 일을 하면서 도서선전준비를 해나가자니 시간이 모자랐다.

그 나날 한희숙동무는 이신작칙으로 보급원들을 고무해주었다. 스스로 작품창작을 맡아가지고 많은 걸음을 하였다. 작가들과 기자, 연출가들을 찾아가 방조를 받으며 하나하나의 작품창작을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놓고 본격적인 훈련이 진행되였다. 한문장을 놓고도 수십, 수백번의 화술훈련이 진행되였다. 이 과정에 보급원들의 기량도 높아졌고 위대성도서선전을 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갖추어졌다.

한희숙동무를 비롯한 보급원들은 도서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의 내용을 가지고 구역당위원회회의실에서 첫 도서선전을 진행하였다.

그날 구역당위원회회의실에는 눈물바다가 펼쳐졌다. 도서선전을 하는 보급원들은 물론 참가자들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도서선전이 일으킨 파문은 컸다. 공장과 기업소 그 어디에서나 어버이수령님을 못 잊어 그리는 사람들모두가 보급원들의 두손을 부여잡고 자주 와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다.

보급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더욱 깊이 느끼며 분발하였다. 한희숙동무는 자기가 직접 작품창작에 달라붙었다. 수백페지에 달하는 도서들의 사상과 내용을 짧은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작품창작을 위해 해당 도서를 열번, 스무번 읽고 또 읽었고 길거리를 오갈 때에도, 밥상을 마주하고도 떠오르는 문장을 수첩의 갈피에 하나하나 적으며 작품창작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 한희숙동무는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사람들에게 사상정신적량식을 안겨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위대성도서선전을 순간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도 한가정의 어머니였고 안해였다. 몇줌의 통강냉이를 삶아 어린 딸들의 밥상에 올려놓으면서, 병치료를 받는 영예군인남편에게 색다른 음식 하나 차려주지 못해 가정주부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갈마들며 마음이 약해질 때도 없지 않았다.

그때마다 남편은 안해에게 힘을 주었다.

《이렇게 나약해진 당신을 보면 한생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켜싸운 동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소. 초소의 전우들이 어제날의 중대장을 지켜보고있소. 군사복무의 나날처럼 구령을 쳐야지. 〈나를 따라 앞으로!〉라고 말이요.》

부상을 입고서도 군복을 벗지 않고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활하는 영예군인남편은 한희숙동무에게 있어서 세대주이기 전에 혁명동지였다.

한희숙동무는 마음을 다잡고 또다시 위대성도서선전의 길에 나섰다. 공장과 기업소, 학교와 인민반으로 …

이 나날에 한희숙동무는 하늘같이 믿고 살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셨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였다.

당시 그는 치명적인 병으로 더는 일을 할수 없다는 의학적인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초인간적인 의지로 결연히 일어나 어버이장군님의 위대성 도서선전을 더 강도높이 벌려나갔다.

하루에도 여러차례나 도서선전이 진행되는 곳마다에서 그의 격동적인 목소리가 높이 울리였다. 비가 와도, 눈보라가 세차게 일어도 그 목소리는 끊기지 않았고 대중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이 나날에 구역출판물보급소는 전국적인 도서해설선전경연에 출연하여 7차례나 우승을 하는 자랑을 떨치였고 한희숙동무는 모범선동원으로 자라났다.

오늘도 모란봉구역출판물보급소 보급원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도서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그 앞장에는 어제날의 인민군대중대장이였던 한희숙동무가 서있다.

특파기자 최 수 복

독자의 편지

그 품을 떠나선 못삽니다

저는 공화국영웅 김창복의 어머니입니다. 조선인민군 군인이였던 저의 아들은 수십년전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한목숨바쳤습니다.

응당 할 일을 한 우리 창복이에게 나라에서는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해주었고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었습니다. 그 은혜만도 이를데없이 큰데 모두가 저를 영웅의 어머니라고 존경해주며 극진히 아껴주니 정말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마운 사람들속에는 동대원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도 있습니다.

지난 광명성절 아침이였습니다. 저의 집으로 동대원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광명성절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저의 손을 다정히 잡는 그들은 꼭 친혈육같았습니다.

저는 불시에 눈굽이 젖어들었습니다. 저를 찾아와 나이도 많은데 건강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새 옷이며 보약들을 마련하여 안겨주던 일이며 가정형편에 대하여 수시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주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한생을 영웅의 어머니답게 떳떳이 살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준 그 마음들은 또 얼마나 뜨겁고 웅심깊은것이였겠습니까.

이어 그들은 앞으로는 건강과 생활에서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알리라고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적어주는것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사자가족들을 잘 돌봐주라는것은 당의 뜻입니다.》

순간 나의 눈앞에 영광의 기념사진들이며 영웅메달이 번쩍이는 아들의 군복이 어려왔습니다.

당의 품속에서 평범한 청년이 공화국영웅으로 영생의 언덕에 올랐고 그를 낳았을뿐인 저의 삶도 세월과 더불어 영광과 행복으로 이어진것이였습니다. 생의 시작도 끝도 오직 그 품에만 있는 어머니당,

정말이지 그 품을 떠나서 우리는 순간도 못삽니다.

동대원구역 새살림동 46인민반 문 도 영

민족분렬사는 반통일원흉의 정체를 고발한다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투쟁목표이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우리는 여러가지 주동적이고 아량있는 제안들을 내놓았다. 그것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지환영을 받고있다.

하지만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흐려지고 조선반도정세는 점점 악화되고있다. 그 원인은 다름아닌 미국에 있다. 력사적으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개선의 국면이 조성될 때마다 로골적인 간섭과 방해책동으로 정세흐름을 가로막고 대결기운을 조장하였다. 우리 나라의 분렬에 직접 관여한 트루맨행정부로부터 현 오바마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백악관의 주인들은 계속 바뀌였지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날을 따라 더욱더 악랄한 내용으로 수정보충되고있다.

돌이켜보면 북남관계력사의 갈피마다에는 동족사이에 쐐기를 치며 통일을 집요하게 가로막아온 미국의 검은 마수가 비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입니다.》

조선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기본목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살인 동시에 북과 남의 대결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첫 시기부터 북과 남사이에 리간과 대립을 조성하며 조국통일을 가로막아왔다.

미제가 해방후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막고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소집되였던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파탄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한것은 그 한 실례이다. 당시 미제는 남조선의 애국적인 정당, 사회단체인사들이 평양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의 명의로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북남협상에 호응하는 남조선의 정계인사들을 《착각을 가진 용공분자》로 몰아대고 《무사치 못할것》이라느니, 《북에 가면 과거를 추궁받고 연금될것》이라느니 하면서 련석회의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제는 그후 조선반도에서 날로 고조되는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적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이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았을 때에도 전쟁상인 덜레스를 남조선에 보내여 《북과의 타협이나 양보를 거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리승만도당을 전쟁에로 부추기였다. 만일 그때 우리 공화국의 통일방안이 실현되였더라면 전쟁은 방지되고 나라의 통일은 이미 이룩되였을것이다.

1970년대에 미제는 우리 민족의 영구분렬을 노린 《두개 조선》정책을 저들의 대조선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행에 악랄하게 매여달리였다. 그로 하여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대화는 침체상태에 빠지고 7.4공동성명의 발표로 밝아졌던 통일의 전망도 점차 흐려졌다.

긴장격화와 도발적인 총포소동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방해해나서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미제호전광들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무력증강과 북침전쟁연습소동들을 발광적으로 벌리는것으로 우리 민족의 불타는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민족적화해와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망쳐놓았다. 1976년부터 감행되였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우리 민족을 북과 남으로 영원히 갈라놓고 남조선에 침략군을 계속 못박아두며 남조선을 발판으로 우리 공화국과 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것은 미제가 추구하고있는 변함없는 대조선전략이다. 이 범죄적목적으로부터 미국은 6.15공동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기운이 부쩍 높아지고 북남관계가 대화와 협력의 길에 들어서는데 불안을 느끼고 그것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책동을 일삼았다.

2000년 6월 평양에서는 처음으로 북남수뇌분들의 상봉이 진행되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온 겨레를 끝없이 격동시키였다.

그런데 유독 미국만은 《놀라운 결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것은 우방간에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로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6.15공동선언의 리행을 가로막기 위한 비렬한 놀음에 매달렸다. 미행정부는 《힘에 의한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새 판짜기를 준비》하고있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저들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적극 공조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또한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승인없이 북과 만나는 문제는 《그냥 두어서는 안될 심각한 사태》라고 하면서 미국과의 합의가 없는 북과의 어떠한 접촉과 교류도 승인하지 않는다는것을 남조선당국에 정식통보하는 등 협박을 들이댔다. 미국의 이러한 횡포한 압력에 의해 북남관계는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후 우리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북남대화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자 미국은 워싱톤의 강경정책이 있었기때문에 《북이 대화에 나오게 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북남사이에 쐐기를 박으려 하였다. 미국은 《대북투자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느니 뭐니 하고 생트집을 걸면서 북남협력사업들에도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최근 조선반도에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자 미국의 이런 고약한 악습은 또다시 되살아나고있다. 미행정부는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 겨레의 열망이 날로 뜨겁게 분출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추세와 조선민족의 지향에 도전하면서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에 더욱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미제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투입하면서 북침선제공격을 가상한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고위인물들이 련이어 나서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바라지 않는 저들의 속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이것이 조선반도의 정세완화에 제동을 걸면서 대결상태를 계속 격화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한사코 압살하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책동이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

현실은 미제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없으며 자주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반통일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온 겨레앞에 나서는 초미의 절박한 과업이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미제의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활짝 열어나가겠다는 의지밑에 단합된 힘으로 일떠설 때 미국의 그 어떤 방해책동도 맥을 출수 없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고집하면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한사코 방해한다면 남조선에서 반미자주의 기운은 더욱 고조될것이며 종당에는 제 소굴로 쫓겨가는 치욕을 당하게 될것이다.

허 영 민

동족에 대한 비방중상을 당장 중지하라

해외동포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유럽지역본부와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가 15일 《반통일대결광신자들은 동족에 대한 비방중상을 당장 중지하라》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11일 남조선정보원산하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유성옥이라는자가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는 험담질을 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이자의 망동은 그 내용과 극악성에 있어서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것으로서 지금 민족의 분노를 폭발시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우기 《새누리당》소속 《국회》의원패거리들의 공식모임에서 이런 망발을 하였다는 그자체가 미리 준비된 각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밝혔다.

남조선당국이 우심해지고있는 공화국에 대한 비방중상이 그 어떤 개별적인물이나 단체,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의한것이라고 아닌보살하였지만 사실은 청와대와 정보원,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결탁하여 짜고든 고의적인 모략소동이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당장 해체의 심판대우에 올라있는 정보원의 떨거지들이 감히 그 누구에 대해 혀바닥을 제멋대로 놀리는것이야말로 달을 보고도 무서워 짖어대는 개넉두리가 아닐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이번 망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더욱 철통같이 뭉치고 불패의것으로 다져진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해치고 영상을 흐려보려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단말마적발악이며 민중이 전설적영웅으로 떠받드는 찬란한 태양의 빛발을 어지러운 손으로 가리워보려고 헤덤비는 정신병자의 발작이라고 단죄하였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북남고위급접촉합의를 로골적으로 뒤집어엎고 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신뢰를 쌓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의사가 있다면 이번의 엄중한 도발행위에 대해 사죄하도록 해야 하며 더이상 졸렬한 개수작놀음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무모한 핵공갈과 위협을 일삼는 미국을 단죄

15일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인터네트홈페지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일삼는 미국을 단죄하는 글이 실렸다.

글은 2월초 판문점에서 북남사이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과 관련한 합의를 이룩해나가는 그 시각 미국이 《B-52》핵전략폭격기편대를 조선서해직도상공에 투입하여 북을 겨냥한 핵타격연습을 감행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도발적망동은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의 속심을 폭로해준다고 비난하였다.

동시에 조선반도에 핵전쟁위기를 몰아오고 핵문제해결을 가로막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파문이 커지자 태평양지역 미공군사령부가 변명해나섰지만 오히려 입이 닳도록 《북핵문제》를 떠들면서 북에 대한 무모한 핵공갈과 위협을 일삼는 미국의 기만적이며 도발적정체만을 드러내놓았다고 지적하였다.

서푼짜리 궤변으로써는 내외여론을 오도할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을 조성하여 핵문제를 산생시키고 그 해결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규탄하였다.

북을 걸고들 꼬물만 한 자격도 체면도 없는 미국은 응당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족과 국제사회앞에 사죄하고 핵공갈과 위협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핵문제해결을 바란다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북에 대한 무모한 핵위협소동부터 걷어치워야 한다고 글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나운 발톱을 드러낸 침략의 《독수리》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벌리고있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도발적정체가 날로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미제침략군의 각종 핵타격수단들이 쓸어든 가운데 도처에서 북침공격연습들이 한창 감행되고있다. 이번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서 특히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는것은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벌어지는 련합상륙훈련이다. 《쌍룡》이라는 명칭을 단 이 전쟁연습에 미해병대 제3원정려단, 해군기동대를 비롯한 미제침략군 무력 1만여명과 남조선군 4 500여명 등이 참가한다. 남조선언론들은 올해의 《쌍룡》훈련이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될것이라고 보도하고있다.

이 훈련은 우리측 해안지역과 류사한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해마다 감행되는 기습상륙작전연습으로서 방대한 무력이 해상과 공중무력의 지원밑에 상륙장갑차, 수륙량용땅크 등을 리용하여 해안에 상륙한 뒤 공화국 북반부 종심깊이에로 전투지역을 넓히면서 증원무력이 진출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군부는 이 훈련의 가상점령지역이 《북의 동해안지역》이라는것을 공공연히 광고하면서 북침공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훈련의 급과 규모를 부단히 높여왔다.

《쌍룡》훈련은 전형적인 공격훈련이다. 더우기 이번 연습에 참가하게 될 미해병대 제3원정려단은 지난 이라크전쟁에서 악명을 떨친것을 비롯하여 침략의 선견대역할을 하고있으며 북침전쟁각본에 따라 유사시에 조선반도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무력으로 알려져있다. 이것은 미제가 그 무슨 《방어적성격의 훈련》이니, 《도발대비》니 하는 뻔뻔스러운 수작들을 내뱉으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북침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광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남조선언론이 전한데 의하면 얼마전 한 군당국자는 《상륙병력은 전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련합상륙훈련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연습이 임의의 시각에 군사적충돌로 이어질수 있다는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쌍룡》전쟁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성격은 바로 여기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테두리내에서 벌어지는 련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 썬더》훈련도 《쌍룡》훈련에 못지않게 위험천만하다. 이 전쟁연습에는 미제침략군 해, 공군의 《F-16》, 《FA-18》, 《A-10》 등 전투기들이 동원되여 공중전과 폭격훈련을 실전과 다를바 없이 진행하게 된다. 이 훈련의 규모 역시 올해에 최대에 이르고있다. 더우기 이 전쟁연습은 《쌍룡》훈련이 절정에 달하는 4월초부터 벌어지는것으로 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내외호전광들의 위험한 불장난소동은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제공격기도의 뚜렷한 발로로서 미제의 북침흉계가 실천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지난 14일부터 조선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미제와 남조선군의 이지스함,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을 비롯한 각종 전투함선들이 실전을 방불케 하며 전쟁연습에 돌아치고있다. 이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여 벌리는 도발적인 불장난소동이 북침을 위한 실전으로 번져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하면서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짙게 몰아오고있다.

이처럼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엄중히 위협하며 북침을 노린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있는 미제호전광들은 뻔뻔스럽게도 우리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도발》로 걸고들며 내외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도발자, 호전세력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무리지어 쓸어든 공격무력

침략적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한창인 남조선은 미국이 끌어들이고있는 북침공격수단들의 대전시장으로 되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침공할것을 노리고있는 미제침략군과 추종세력의 방대한 무력이 기동하면서 전쟁연습의 화약내를 짙게 풍기고있다.

내외호전세력의 이러한 책동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위협으로서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하기에 지금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국이 감행하고있는 북침합동군사연습책동을 강력히 반대규탄하면서 불장난소동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과의 《공약》이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그 어떤 《군사적위협에도 대처》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합동군사연습의 도수를 날로 높이고있다.

한편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몇가지 사실들을 보기로 하자.

미국은 얼마전 핵추진잠수함 《콜럼부스》호와 제7함대 기함 《블루릿지》호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북침합동군사연습에 투입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제7함대소속의 이지스유도미싸일구축함 《커티스 윌버》호, 이지스구축함 《라쎈》호, 미싸일순양함 《레이크 에리》호, 이지스구축함 《하워드》호를 남조선의 동, 서, 남해의 항구들에 동시에 끌어들이였다. 남조선의 출판물들은 미국의 대형함선들이 동, 서, 남해의 항구들에 동시에 입항한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책동이 심상치 않은것이며 매우 위험한 사태를 예고해주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한 고리로 벌리게 되는 대규모적인 련합상륙훈련에 투입하기 위해 해병대 제3원정려단과 해군기동대무력을 끌어들일 계획을 작성해놓고 그 실행에 들어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과 함께 벌리는 련합공중전투훈련참가를 명목으로 《F-16》, 《FA-18》, 《A-10》을 비롯한 숱한 비행기를 동원시키려 하고있다. 이 전쟁연습에 참가하는 비행기수는 지난 시기의 60대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근 100대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군사적위협이 과연 어디에서 오고있는가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고위인물들은 매일과 같이 우리 공화국의 그 무슨 《위협》에 대하여 떠들며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미국이 이처럼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놀아대는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북위협》설을 널리 퍼뜨려 저들의 전쟁도발소동을 합리화하고 남조선에 더 많은 공격무기들과 전쟁장비들을 투입하여 북침목적을 기어이 달성하자는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분별한 무력증강과 북침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격화되고있으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도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암적존재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대결조치해제를 주장

남조선의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정세전문가들이 대결조치인 《5.24조치》를 해제할것을 주장하였다.

18일 남조선의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통일, 외교, 안보전문가 88명을 대상으로 북남사이의 신뢰회복을 위한 최우선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6.6%가 《5.24조치》의 해제를 주장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79.5%가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61.4%는 금강산관광이 북남사이의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라고 평가하였다 한다.

기만적인 복지정책을 비난

남조선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남조선의 장애자단체, 인권단체, 민주로총 성원들이 얼마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어머니와 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것은 삶의 막바지에 내몰린 그들의 처지를 외면한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의 기만적인 복지정책이 그들을 죽음에로 몰아갔다고 비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벌려나갈것이라고 발언자들은 선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대학생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숙명녀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를 비롯한 남조선의 12개 대학들에서 19일 일본군성노예범죄를 규탄하는 수요시위투쟁이 각각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일본이 《전쟁시기 위안부제도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했다.》는 망언을 쏟아내며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일본정부가 과거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함께 법적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정부》도 일본군에 짓밟힌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되찾기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국의 의료민영화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최첨단돌파는 우리의 몫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에 참가한 남포시안의 3대혁명소조원들이다.

남포시에서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전시품들은 최첨단돌파전의 기수로서의 영예를 빛내여가려는 시안의 3대혁명소조원들의 비상한 의지와 창조적열정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포어린이약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 신영미동무가 내놓은 어린이전용알약들은 어린이들의 특성에 매우 알맞는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충정다해 받들려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창조의 낮과 밤을 끊임없이 이어온 그의 열정이 전시품마다에 그대로 비껴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김원길, 리성호, 조림동무들이 출품한 대형수력발전기의 새로운 미끄럼베아링과 교류사보전동기도 착상이 기발하고 그 리용가치가 높은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김영수, 장창국동무들도 전기로바닥과 벽체안붙임의 재료를 새롭게 연구개발하여 이번 전시회에 내놓았다.

이밖에도 남포해운사업소의 황광성, 대안전기공장의 황철진동무들을 비롯하여 시안의 많은 3대혁명소조원들은 가치있는 창안품들을 출품하여 참관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수많은 참관자들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고생도 달게 여기며 최첨단돌파의 길을 쉬임없이 걸어온 이들의 투쟁에 탄복하고 이룩한 성과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남포시전시대에서 쉬이 발길을 떼지 못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 철 권

당면한 영농사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

벼모기르기에서 모판산도조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농업부문에서 종자와 로력,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수확고를 훨씬 높이는 여러가지 영농방법들을 연구도입하고있는데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논벼농사에서는 속성모와 영양랭상모, 영양알모 등 실리있는 모기르기방법들이 도입되고있다. 더우기 영양랭상모를 비롯하여 씨뿌림량이 많은 모인 경우에는 쉽게 모마름병에 걸릴수 있으므로 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모마름병은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병원균에 의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리적인 모마름병이다. 생리적인 모마름병은 모의 뿌리기능이 약해질때 생긴다. 모잎수 2~3잎 시기에 모판흙의 페하가 5.5이상으로 높아지고 밤에 모판온도가 5℃ 정도까지 낮아지면 모의 뿌리기능이 심히 억제되여 생리적모마름병에 걸리게 된다. 특히 밤에 모판온도가 4℃이하의 낮은 온도로 몇시간만 경과되여도 이 병에 걸리게 된다. 모마름병을 막고 모를 튼튼히 기르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모판산도를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하는것이다.

모마름병을 막기 위해서는 모판흙의 산도를 페하가 5.5아래로 되도록 실정에 맞게 산도조절제로 잘 맞추어야 한다. 모판산도는 페하가 4.5~5정도인 비옥도가 높은 흙을 상토재료로 리용하여 보장할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산도조절제로 산도를 알맞게 보장하여야 한다.

산도조절제로는 여러가지 재료를 리용할수 있다.

류산철을 보드랍게 가루내여 평당 150~200g 정도 모판흙에 섞으면 페하가 1~1.5정도 낮아진다. 또한 모판흙에 조류황을 평당 50g 섞으면 페하가 4.1로 낮아진다. 모판흙에 평당 조류황 50g과 티오균비료 10㎖을 고루 섞어주는것도 페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페류산은 벼모의 모판산도조절제로서 뿌리발육에 좋은 영향을 준다. 자료에 의하면 페류산(50~60%)을 모판흙에 평당 200㎖ 섞으면 페하가 1정도 낮아진다고 한다. 다원소광물질비료(카리티탄비료) 1㎏을 200L의 물에 풀어 모판흙에 평당 0.3L 섞을 때에도 페하가 1정도 낮아진다.

모판흙의 산도를 보장할 때 산도조절제로 산성백토나 석비레를 쓰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는 칼시움과 마그네시움함량이 비교적 많아 벼모판종합영양제의 린성분이 난용성린화합물로 전환되여 린보장이 힘들게 되며 뿌리발육에 지장을 주기때문이다.

각지 농촌들에서는 모판산도를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하여 벼모를 튼튼하게 길러냄으로써 올해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농업과학원 작물재배연구소 서 춘 성

랭습피해를 막기 위한 토지개량방법

당이 제시한 올해알곡고지를 점령하자면 토지개량을 적극 다그쳐야 한다. 특히 최근년간 기후변화로 장마가 길어지고 무더기비가 자주 내리는 조건에서 랭습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토지는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이며 후대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랭습피해를 막자면 우선 랭습지와 계절습지를 기술적요구대로 개량하여야 한다.

그러면 랭습지와 계절습지는 어떻게 개량하여야 하는가.

밭머리에 차단물도랑을 째야 한다.

강하천이나 물길로부터 스며드는 물을 빼기 위한 차단물도랑은 물길뚝밑에 0.5~1m의 깊이로 파며 산기슭에서 스며드는 물을 막기 위해서는 차단물도랑을 밭머리에 째야 한다.

포전에 걸물도랑도 째야 한다.

걸물도랑은 밭이랑을 짓고 비물이 모여드는 골을 따라 미리 째거나 장마철전에 쨀수 있다. 이때 밭고랑보다 5~10㎝ 더 깊이 파야 한다. 재령군의 어느 한 협동농장에서는 랭습피해를 받는 4정보의 밭에 걸물도랑을 간격 30m, 깊이 0.5~0.6m로 짼 결과 강냉이재배면적은 정보당 60평 정도 줄어들었지만 수확고는 걸물도랑을 째지 않은 밭에서보다 2t이상 더 높아졌다고 한다.

갈이바닥층들춰갈이방법과 두둑재배방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미루벌을 비롯한 누운질토양에서는 갈이바닥층이 매우 굳어 장마철에 비물이 스며들지 않아 습해를 심하게 받는다. 이런 토양에서 들춰갈이는 보통 30~50㎝의 깊이에 70㎝의 간격으로 하거나 뜨락또르로 마감후치질을 할 때 고랑바닥을 30㎝ 정도의 깊이로 들춰주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얕은 땅속물도랑째기도 랭습지와 계절습지개량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땅속물도랑째기는 0.5~0.6m의 깊이를 가진 도랑을 경사방향으로 10~15m 간격으로 판 다음 돌이나 잡관목묶음을 넣고 묻는 방법으로 한다. 돌을 넣는 경우에는 넙적한 돌을 마주세워 삼각물도랑을 만들고 그우에 작은 돌을 채우며 잡관목묶음을 넣을 때에는 마른풀이나 벼짚같은것으로 덮고 묻어주어야 한다.

랭습피해를 막자면 또한 뿌리썩음병이 심한 저습, 진펄논들을 개량하여야 한다.

저습, 진펄논은 땅속물층이 높을뿐아니라 갈이바닥층이 굳어 논물이 스며들지 못한다. 그리고 땅속온도가 다른 논에 비하여 3~4℃ 낮으며 토양에는 해로운 환원물질들이 많이 축적된다. 결과 논벼의 뿌리활성이 낮아져 영양물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때문에 수확고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논을 개량하자면 깊은층들춰갈이를 하여 갈이바닥층을 마스고 간선걸물도랑째기에 의한 배수체계를 세워 땅속물층을 낮추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이며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인 토지를 기술적요구대로 개량함으로써 올해를 높은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여야 한다.

농업성 부국장 김 창 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세계사적업적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 인민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던 1929년 인디아작가 타고르가 쓴 시이다. 그는 여기에서 조선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의 이러한 굳은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자기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의 운명개척의 사상적기치를 마련해주시고 주체사상으로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주체사상은 짓밟히고 억눌리던 인민대중을 세기적인 잠에서 깨여나게 하고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주체사상은 날이 갈수록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더욱 더 빛을 뿌리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있었기에 인류자주위업은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올수 있었으며 20세기는 인류가 수없이 맞고 보낸 지난 세기들중에서 가장 위대한 세기로 빛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시대를 낳는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나 원자탄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이다.

인류는 오랜 력사적기간 자기 사상사에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상과 리론들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주체사상과 같이 그처럼 시대성이 뚜렷하고 시대와 더불어 영원한 혁명사상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고있다.

지난 20세기 초엽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여 격렬한 계급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새로운 시대는 계급해방뿐아니라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길을 밝혀주는 새로운 지도사상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을 청산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세계적범위에서 혁명운동이 폭넓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력사의 새시대가 다가왔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러나 당시 그 어느 정치가도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있었다. 1928년에 있은 국제공산당 제6차대회는 제1차 세계대전후의 정세를 분석하였다. 대회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앙양되고있다는것을 지적하면서 일련의 전략전술적 문제들만을 토의하였다. 대회는 세계적판도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시대와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가 도래하였다는데 대하여서는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당시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선행리론을 유일한 사상적무기로 인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선행리론으로써는 풀수 없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인류는 새로운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줄수 있는 지도사상을 목마르게 기다렸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민족과 인류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중심에 놓고 시대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9(193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된 카륜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조선혁명의 진로》에서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교훈을 분석총화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창시를 알리는 시대의 선언이였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조선혁명은 자주의 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 위대한 주체시대가 열려지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한 주체사상의 창시, 이것은 인류의 진보적사상발전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사변이였다. 주체사상창시로 세계 진보적인류는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는 력사적전환이 일어났다. 세계 곳곳에서는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를 헤아리시고 새시대의 옳바른 지도사상을 창시하신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 칭송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세계적범위에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 그것을 사상리론적무기로, 투쟁의 기치로 삼는 사람들과 진보적정당들, 나라들이 계속 늘어났다. 주체사상이 창시된 조선은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영원히 밝혀주는 등대로, 혁명의 성지로 되였으며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는것은 세계혁명가들과 진보적정치인, 인류의 최대의 소망으로 되였다.

하기에 지난 20세기 중엽부터 세계정치무대에서는 하나의 격언이 공리처럼 인정되여왔다. 그것은 바로 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와야 한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사상을 주는것은 세계를 주는것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 한 력사가는 불의 발견과 리용이 인류에게 문명의 문을 열어준 사변이라고 하지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인류에게 주인된 세계, 리상향건설의 열쇠를 안겨준 거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오늘도 그 진리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세계 수억만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필승불패의 지도사상으로,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의 기치로 더욱 빛나고있다.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자주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김 철 룡

사상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해가는 조선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여러 나라 인사들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성원을 보내고있다.

칠레공산당(프로레타리아행동)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조선혁명을 백승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인류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사상의 힘, 인민의 정신력으로 조선은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웠다.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이 조선인민의 앞길을 밝혀주고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승승장구해왔다.

나이제리아자력갱생연구소조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수십성상 조선인민을 이끄시면서 사상중시의 정치를 펼치시였다.

그이의 정치철학은 국제사회가 인류자주위업의 지도사상으로 공인하는 주체사상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였다.

바로 사상의 위력으로 력사의 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조선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생명력과 견인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지도사상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인민의 크나큰 긍지이며 영광이라고 격찬하였다.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 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상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사상의 위력은 곧 사회주의의 위력이다.

자기의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투쟁기세는 충천하다.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사회주의는 인류의 리상이며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면서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레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전진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

네팔신문 특집

태양절에 즈음하여 네팔신문 《아르판》 7일부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신문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 **김일성**주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은 걸출한 사상리론활동과 현명한 령도로 20세기를 빛내이신 위대한 철학가, 정치가, 군사전략가이시다.

주석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또한 한세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였으며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주석께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룩하신 업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

김일성주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주석께서는 인류와 더불어 영생하실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군대를 주체의 혁명강군, 당과 수령의 군대,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였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왔다.

김일성주석은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조선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벨라루씨정당과 단체들, 나이제리아인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과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련맹과 련맹공산당을 위하여》전국사회련합을 비롯한 4개의 단체들이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며 조선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끝장낼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이 터무니없는 《인권》소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며 미국이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조선은 미국의 압살책동에 당당히 맞서는 나라이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알하싼 맴맨 무함마드가 1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미국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조선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침략적인 군사적힘으로 조선민족모두와 조선반도를 통채로 집어삼키려는 가장 포악한 정책이라고 까밝혔다.

또한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을 끝장내는데 기본을 두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와 나는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짓부셔버릴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

미국의 제재시도에 경고

베네수엘라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가 18일 국내라지오 및 TV방송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시도에 경고하였다.

그는 미국이 부당한 구실을 내걸고 베네수엘라를 반대하여 경제제재를 가하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로 하여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고 언명하였다.

적들의 음모에 각성할것을 호소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17일 한 상봉석상에서 이슬람교도들이 적들의 음모에 각성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서방렬강들이 전례없는 음모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인들을 도시와 마을들에서 내쫓았던 죄악의 력사를 지워버림으로써 세계여론이 그에 대해 점차적으로 잊게 하려고 획책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세계 모든 민족들 특히 이슬람교도들은 팔레스티나인들에게 끼친 이스라엘의 온갖 범죄의 력사를 미화분식하기 위한 서방렬강들의 외곡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에 대한 제재 반대

벨라루씨외무성 공보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로씨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반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밝혔다.

그는 로씨야의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사증발급을 중지하거나 금융제재를 가하는것은 비효과적인 조치라고 하면서 벨라루씨는 제재를 대외정치 및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는것을 일관하게 반대한다고 언명하였다.

제재는 호상불신과 몰리해를 더욱 증대시킬뿐이라고 하면서 그는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외교적인 방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견상이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미항의행동 전개

스리랑카에서 20일 유엔인권리사회에 제출된 미국의 부당한 결의안을 반대하는 항의행동들이 벌어졌다.

수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대사관앞까지 시위행진을 벌리면서 자기 나라의 인권상황을 걸고든 미국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나라의 동부와 북부도시들에서도 항의행동들이 전개되였다고 한다.

페암으로 많은 인명피해

영국에서 페암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19일 이 나라 암연구소는 해마다 약 3만 5 200명이 페암에 걸려 사망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정착촌확장책동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유태인정착촌들을 계속 확장할것을 획책하고있다.

20일 이스라엘당국은 이 지역의 여러 정착촌들에 1 220세대의 유태인살림집을 더 건설할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처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 부딪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국제축구련맹 새로운 복장착용규정 발표

국제축구련맹이 얼마전 스위스의 쭈리히에서 열린 국제축구협회리사회 년차총회에서 선수들의 머리수건착용을 공식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리사회는 선수들이 속옷에 구호를 쓸수 없다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선수들의 복장에는 구호나 광고, 그 어떤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인 글들이 씌여져서는 안된다. 또한 구호나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 선수복을 벗은 선수는 경기조직자들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규정은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월드컵경기대회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

협조

중국과 인디아가 19일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철도운수, 에네르기 등 분야에서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18일 꾸바와 나이제리아는 쌍무경제무역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로 하였으며 아르헨띠나와 브라질은 인신매매와의 투쟁에서 협력을 강화할데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

꽁고와 앙골라가 18일 두 나라사이의 국경지역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위원회를 내오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와 쯔르나고라는 경제발전문제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강철생산 증대

이란에서 지난해 1 540만의 강철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6.6%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최근 이 나라 신문 《테헤란 타임스》가 이에 대해 전하였다.

동생산전망

잠비아에서 올해 동생산량이 90만t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7 000t 더 많은것으로 된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 2016년까지 년간 동생산량을 150만t수준으로 끌어올릴것을 계획하고있다.

18일 이 나라 신문 《타임스 오브 잠비아》가 이에 대해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디아의 방직공장

중동정세를 악화시키는 무모한 행위

오늘의 세계

3월에 들어와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지난 13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의 7개 지역을 폭격하였다. 그 전날에는 29개의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였다.

분노한 팔레스티나의 한 단체는 대응공격을 하였다.

당시 쌍방사이의 로케트탄공격과 공습으로 가자지대는 총폭탄이 터지는 무시무시한 지역으로 화하였다. 이것은 1년 4개월만에 벌어진 최대규모의 교전으로 된다.

지난 2007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대를 봉쇄하기 시작한 이후 중동지역에서는 무력충돌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고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하루빨리 이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여러 국제기구들과 나라들이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에 평화협상이 이룩되도록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

오늘 중동지역에 평화가 깃들지 않고 쌍방사이의 교전이 계속되고있는것은 이스라엘의 부당한 요구와 무모한 군사적행위에 기인된다.

최근시기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가 자기를 유태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한 중동평화협상의 그 어떤 진전도 있을수 없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요구는 중동평화과정을 파괴하는 부당한 요구로서 절대로 접수될수 없는것이다.

이스라엘의 부당한 요구는 팔레스티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배격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4일 팔레스티나대통령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요구는 시간을 끌면서 팔레스티나와의 평화협상을 파탄시키려는 부당한 시도로 된다고 단죄하였다. 같은 날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그와 같은 요구가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인들을 차별하기 위한 책동의 하나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로골화되고있는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도 중동지역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한 고리이라고 말할수 있다.

최근시기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에 유태인정착촌문제를 놓고 무장충돌에로까지 확대되였다는것은 이미 다 알려져있다. 팔레스티나는 유태인정착촌활동을 금지할데 대하여 이스라엘에 한두번만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령토팽창야망을 버리지 않고 유태인정착촌확장에 집요하게 매여달리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이스라엘은 가자지대를 비롯한 팔레스티나령토에서 유태인정착촌을 계속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계획을 로골적으로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는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최근 팔레스티나외무성은 이스라엘중앙통계국이 지난해 정착촌건설이 그 전해에 비해 123%나 늘어났다고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평화노력을 파괴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침체상태에 빠진 중동평화과정을 구원하기 위해 정착촌건설책동을 중지하도록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유태인정착촌건설은 단순한 주택건설문제로만 볼수 없다. 오늘 이스라엘이 유태인정착촌확장에 대해 떠드는 동부꾸드스지역만 놓고보아도 팔레스티나가 자기의 수도로 여기고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유태인정착촌을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망동은 대화의 분위기를 파탄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국제사회계는 이를 견결히 반대하면서 중동평화문제를 마땅히 《땅과 평화를 바꾸는》 원칙에서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날로 로골화되는 이스라엘의 무모한 군사적공격도 중동평화를 파괴하는 엄중한 행위이다. 이번에 최대규모의 교전이 일어나게 된 기본계기도 이스라엘의 무인기공격에 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팔레스티나의 한 단체가 진행한 로케트탄공격은 이스라엘공군이 가자지대 남부를 무인기로 공습한지 하루만에 발생하였다고 한다. 팔레스티나의 이 단체는 이스라엘이 3명의 자기 조직성원을 살해한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 중동지역의 정세를 긴장격화시키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호전적인 태도는 오늘 중동지역의 정세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고있다. 얼마전 이스라엘수상은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의 팔레스티나《호전분자》들에게 힘으로 대응할것이라고 하면서 《남부이스라엘에 고요가 깃들지 않는다면 가자지대에서는 아우성이 울리게 될것이다.》라고 줴쳐댔다.

외신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부당한 요구와 무모한 군사적공격을 그만두지 않는 한 중동평화문제에서 진전을 이룩하기 어려울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본사기자 신경섭

환멸을 자아내는 집요한 력사외곡책동

일본반동들이 력사외곡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여기에 당국자를 비롯한 집권세력이 앞장에 서고있다. 그들은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참혹한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르며 엄청난 인적 및 물적, 정신적피해를 준데 대하여 외곡, 부정하면서 일제에 의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망발들을 계속 늘어놓고있다.

그런가 하면 교육분야에서 《력사수정주의》의 새 정책을 들고나간다고 하면서 중, 소학교 력사교과서들에서 일제의 아시아침략과 성노예범죄 등 부정적측면을 폭로하는 부분을 대폭 약화시키려 하고있다.

얼마전에는 일본문부과학성이 《남경사건이나 위안부에 관한 서술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있다.》는 자민당의 주장에 따라 교과서검정기준을 개정하였다. 어떻게 하나 과거범죄력사를 뒤집어엎자는것이다. 최근에도 일본에서는 엄연한 사실인 성노예범죄를 애써 부정하며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는 궤변들이 왕왕 튀여나오고있다.

국제사회는 일본반동들의 망동에 경악을 표시하며 일본이 하루빨리 과거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여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그 무슨 증거부족이니, 재검토하겠다느니 뭐니 하는 말장난질을 하며 과거청산을 회피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전 중국이 구일본군 세균전부대들이 점령지역에서 감행한 세균무기실험만행을 폭로하는 문건들을 새로 발굴하여 공개하였다. 이 문건들은 1936년부터 1945년 5월까지의 자료들을 기록한것이며 거기에는 81권에 400여건의 문서자료와 70여판의 음성 및 영상자료들이 포함되여있다. 새로 발굴한 문건들은 731부대 등 18개의 세균전부대들이 일제의 침략확장정책의 중요한 전략적수단의 하나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일본군성노예범죄에 일본정부가 관여하였다는것을 증명하는 32건의 문건자료들을 새로 발굴하였다. 이 문건들은 성노예들을 강제징집하여 노예화하고 학대한 일본군의 폭행에 대해 상세히 고발하고있다. 자료들은 성노예들을 강제징집한것이 일본정부의 행위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위안부의 강제징집, 구매는 당시 민간업자의 자발적인 행위》라는 일본정계와 학계의 일부 우익분자들의 주장이 황당한 궤변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어떠한가. 일본반동들은 중국의 자료공개를 시비하며 일제에 의해 감행된 남경대학살만행을 비롯한 자료들이 정확한것이 아니라고 부정해나서는가 하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과의 과거문제는 청산되였으며 특히 성노예문제는 《국민기금》을 통해 이미 해결되였다는 소리를 줴쳐대고있다.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정기기자회견에서 위안부강제징집은 일본군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아시아 등의 피해국인민들에게 감행한 엄중한 반인도주의적죄행으로서 증거가 명백하다, 이 죄행을 부인하고 침략력사를 뒤집어엎으려는데 목적을 둔 일본의 그 어떤 행동도 광범한 전쟁피해국인민들과 국제사회의 견결한 반대에 부딪치게 될것이다, 중국은 일본이 침략력사를 똑바로 보고 심각히 반성하며 책임적인 태도로 위안부범죄를 포함하여 력사가 남겨놓은 유관문제들을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잘못된 길에서 더욱더 멀리 가지 말것을 엄숙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국제무대에서도 일본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지난 6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한 국제회의에서 중국대표는 과거 일본군국주의는 중국 등 수많은 나라들에서 위안부와 로동력을 대대적으로 강제징집하여 잔인한 노예생활을 강요하고 엄중한 반인륜적죄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본군국주의가 위안부를 강제징집한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부 정치인물들은 오히려 이러한 죄행을 부인하려들고있다.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고 력사적죄행을 부인하며 가리워보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침략력사를 뒤집어엎고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해를 주는것으로 된다. 이것은 또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을 받은적이 있는 여러 나라 인민들의 감정을 제멋대로 해치고 국제적정의와 인류의 량심에 엄중히 도전하는것으로 될뿐아니라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기본인권과 인격, 존엄을 란폭하게 짓밟는것으로 된다.

계속하여 그는 일본정부가 력사의 진상을 가리우거나 외곡하려는 행위를 포기하고 위안부 등 문제들을 성실히 대하고 타당하게 처리하며 실제적인 행동으로 침략전쟁의 피해를 입은 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을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의 여러 출판보도물들과 각계각층 광범한 군중들속에서도 일본반동들의 행위는 과거 일제의 침략으로 상처를 입은 아시아인민들의 가슴에 칼질을 해대는 행위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인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하였다.

외신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전하면서 일본의 력사부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응한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여질것이라고 하고있다.

본사기자 리학남

ㄱ-41046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